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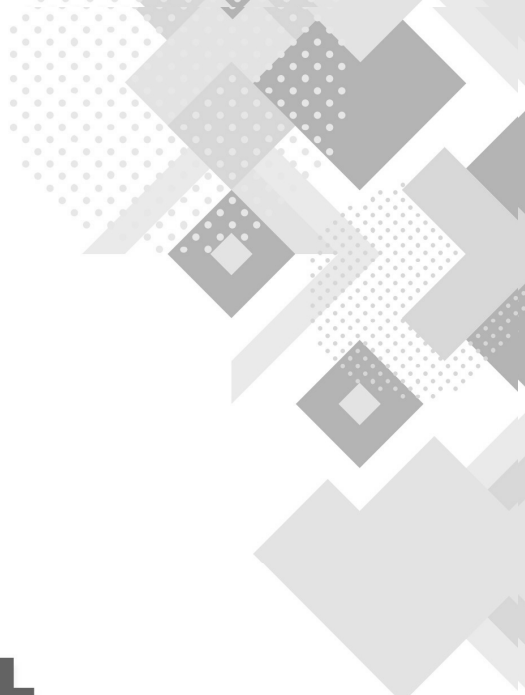
2021

전라남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조사보고서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21

전라남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조사보고서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 목 차 〉

기관소개	1
조사요약	4
Ⅰ. 욕구조사 개요	16
1. 조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방법	17
Ⅱ. 조사결과	2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1
2. 일상생활	27
3. 자립생활	31
4. 사회복지 시설 이용	34
5. 건강·보조기기	36
6. 평생교육	42
7. 여가·문화생활	44
8. 직업생활	47
9. 연령대별 필요 서비스	53
10. 사회관계, 삶의 만족 등	57
11. 장애인 탈시설 관련	60
12. 유형별 자기 결정 차이	64
13.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71
14.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5
15. 탈시설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6
Ⅲ. 결론 및 제언	78
Ⅳ. 부록	82

〈표 목차〉

〈표1〉 성별	21
〈표2〉 출생년도	21
〈표3〉 학력	22
〈표4〉 장애 등록 유무	22
〈표5〉 장애유형	23
〈표6〉 장애유형(대분류)	23
〈표7〉 장애정도	24
〈표8〉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24
〈표9〉 가족수	25
〈표10〉 가족 중 장애인 수	25
〈표11〉 지역	26
〈표12〉 일상생활 수행	27
〈표13〉 일상생활 수행 부담 정도	27
〈표14〉 일상생활 원조자	28
〈표15〉 현재 받고 있는 일상생활 도움	29
〈표16〉 현재 받고 있는 일상생활 도움 충분 정도	30
〈표17〉 장애 성인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31
〈표18〉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희망	31
〈표19〉 현재 거주지 불편 정도	32
〈표20〉 지역사회 생활시 불편한 점	32
〈표21〉 지역사회 생활시 불편한 점	33
〈표22〉 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	34

〈표23〉 장애인시설 이용 시 힘든 점	34
〈표24〉 지역내 추가 개설이 필요한 시설	35
〈표25〉 일반적인 건강 사항	36
〈표26〉 정기적 병원 진료 여부	37
〈표27〉 만성질환 유무	37
〈표28〉 주된 만성질환	38
〈표29〉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부분	39
〈표30〉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39
〈표31〉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만족도	40
〈표32〉 보조기구 불만족이유	40
〈표33〉 현재 필요한 보조기구	41
〈표34〉 평생교육 참여한 경험	42
〈표35〉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42
〈표36〉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43
〈표37〉 주로 참여하고 있는 여가 및 문화활동	44
〈표38〉 여가 및 문화 활동하는 데 어려운 점	45
〈표39〉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여가 및 문화 활동	46
〈표40〉 취업상태	47
〈표41〉 월 평균임금	47
〈표42〉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48
〈표43〉 구직경로	49
〈표44〉 구직 시 어려운 점	50
〈표45〉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점	51
〈표46〉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52
〈표47〉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	53

〈표48〉 장애인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54
〈표49〉 성인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55
〈표50〉 장애인 및 노인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56
〈표51〉 선호하는 소통방식	57
〈표52〉 삶의 만족도	58
〈표53〉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받는 존중감에 대한 인식	59
〈표54〉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59
〈표55〉 탈시설화 및 지역 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인식	60
〈표56〉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욕구에 대한 견해	60
〈표57〉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가능성에 대한 의견	61
〈표58〉 탈시설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61
〈표59〉 탈시설 추진 시 장애인에게 예상되는 어려움	62
〈표60〉 탈시설 추진 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63
〈표6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차이	64
〈표62〉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 차이	66
〈표63〉 장애정도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 차이	67
〈표64〉 수급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 차이	69
〈표65〉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71
〈표66〉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72
〈표67〉 장애정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73
〈표68〉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74
〈표69〉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5
〈표70〉 탈시설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6

기관소개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관소개

1. 설립목적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사회 재활 시설로서 상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문제의 계몽·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지역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션 & 비전

미션	당신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비전	전남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선도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가치	고객존중	행복충족	가치창조	변화지향
	이용자에 대한 자세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통합	사회복지의 전문화	지역사회 및 고객의 인정
전략	개별화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자원개발과 홍보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직원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체계적인 기관 운영시스템의 구축
운영원칙	참여자 중심지향	공감소통 강화	정합성의 이행	서비스 현장 준수
	자원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업 진행	지역사회 네트워크 허브 기능화	미션과 비전, 사업목적에 투합	고객과의 약속 및 이행 표준의 실행
행동가치	책임 업무수행	명확한 의사소통	상호존중	긍정생활 실천
	업무 매뉴얼 실천 업무의 명확화 협력적 업무수행	외부기관 관계유지 격려의 일상화 정확하게 확인	적절한 호칭 사용 작은 의견도 경청 집단모임 적극적 참여	신속한 문제해결 구체적 감사하기 긍정언어 사용

3. 일반현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1길 67(삼영동635-9)
- 운영법인 : 사단법인 선인사회복지회
- 개관일자 : 1991. 4. 1.

○ 연 혁

- | | |
|--------------|---|
| 1991. 02. 28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작업장 준공 |
| 1991. 04. 01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
| 1991. 04. 14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정 |
| 1991. 05. 23 |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운영 위·수탁 계약 |
| 1992. 01. 01 | 재가장애인복지센터 개소 |
| 1993. 04. 20 | 제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창설.주관(2004년 12월) |
| 1993. 11. 19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분관 개관 |
| 1995. 12. 15 | 전라남도장애인체육관 준공 |
| 1996. 01. 01 | 순천분관 내 주간 및 단기 보호사업 개설 |
| 1996. 05. 23 | 전남장애인재활협회 운영 위·수탁 계약 |
| 1997. 07. 10 | 보호작업장 인쇄·인장사업장 개장 |
| 1998. 02. 15 | 론볼링 및 게이트볼 경기장 개장 |
| 1999. 05. 19 | 분관 이전(여수시) 개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내) |
| 1999. 09. 01 | 주간보호센터 개소 |
| 2000. 01. 01 | 1999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 2000. 12. 27 | 전라남도장애인문화의집 개관 |
| 2001. 02. 01 | 홈페이지 개설(www.relife.or.kr) |
| 2001. 03. 01 | 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시 |
| 2001. 04. 16 | 정보화교육사업 개시(보건복지부) |
| 2001. 11. 01 | 1588-0420 상담전화 개설 |
| 2001. 11. 26 | 전남장애인정보검색대회 개최(매년 1회) |
| 2002. 03. 02 | 영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개원 |
| 2003. 01. 01 | 2002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03. 03. 10	영강초등학교 특수학급 개원
2003. 11. 01	전라남도론볼경기장 준공
2003. 11. 03	전라남도지사배 전국론볼대회 개최(매년1회)
2004. 07. 26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실시
2007. 01. 01	2006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7. 03. 05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교육기관으로 지정
2007. 11. 0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위·수탁 계약
2008. 10. 01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강성분관 개관
2009. 01. 01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나주시, 장성군, 함평군)
2009. 03. 02	나주중학교 특수학급 개원
2011. 04. 01	개관 20주년기념 20년사 발간
2014. 12. 01	전국 사회복지나눔대회 우수멘터멘티 표창장 수상
2015. 03. 05	2014년 장애인복지관 시설평가 최우수등급기관 선정
2016. 07. 14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우수기관 선정
2016. 12. 16	분관이전(장흥군) 개관
2018. 03. 20	2017년 장애인복지관 시설평가 최우수등급기관 선정
2019. 01. 01	사단법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회 위·수탁
2019. 08. 1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2019. 10. 05	활동지원기관 지정
2019. 12. 30	2019년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위탁사업 우수기관 선정
2020. 04. 29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수행기관 선정
2020. 05. 20	사단법인 선인사회복지회 법인 명칭변경

조사요약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조사요약

1. 응답자 일반현황

- 조사대상자 : 483명
- 성별 : 남성 259명(53.6%), 여성 224명(46.4%)
- 출생년도 : 1990년대 80명(18.1%), 1950년대 77명(17.5%), 1960년대 74명(16.8%), 1970년대 63명(14.3%) 1980년대 55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180명(38.7%), 초등학교 졸업 62명(13.3%), 대학교 졸업 55명(11.8%), 중학교 졸업 53명(11.4%), 미취학 44명(9.5%)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 유형 : 지적장애 176명(37.4%), 지체장애 146명(31.0%), 뇌병변장애 60명(12.7%), 청각장애 30명(6.4%), 시각장애 21명(4.5%)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 정도 : 심한 장애인 319명(70.6%), 심하지 않은 장애인 133명(29.4%)으로 나타났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 수급자가 아님 241명(51.8%), 수급자 182명(39.1%), 차상위계층 42명(9%)으로 나타났다.
- 가족 수 및 구성형태 : 가족 수는 2명 112명(24.8%), 4명 99명(22%), 3명 87가족(19.3%), 1명 85가족(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성 형태는 부모,자녀가구 173명(37.1%), 1인가구 110명(23.6%), 부부가구 66명(14.2%), 한부모가구 58명(12.4%)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 : 전체 22개 시군에 설문을 시행하여 전체적으로 균등한 분포(2.9~6.8%)를 나타내었다.

2. 일상생활

- 일상생활 수행 : 내가한다 259명(56.1%), 내가 하지 않는다 203명(43.9%)으로 나타났다.
- 일상생활 수행 부담정도 : 부담되지 않음 109명(37.2%), 부담됨 99명(33.8%), 전혀 부담되지 않음 66명(22.5%), 매우 부담됨 19명(6.5%) 순으로 나타났다.
- 일상생활 원조자 : 부모 147명(27.5%), 활동지원사 106명(19.9%), 배우자 95명(17.8%), 기타 46명(8.6%), 사회복지사 39명(7.3%)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받고 있는 일상생활 도움 및 충분 정도

- 집안일 도움 183명(43.3%), 외출·문화생활 도움 172명(40.5%), 돈 관리 도움 169명(40.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위생 도움 106명(24.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집안일 도움 충분하다 167명(85.2%), 건강관리 도움 충분하다 159명(83.7%), 개인위생 도움 충분하다 143명(8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출·문화생활 도움 불충분하다 49명(24.4%)로 나타나 장애인의 외부활동 도움이 가장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3. 자립생활

- 장애 성인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 가족이나 친인척 360명(96.3%), 장애인 동료들(거주시설) 14명(3.7%)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희망 : 원하지 않는다 277명(83.9%), 원한다 53명(16.1%)으로 나타나 장애인은 거주시설 입소 보다는 지역사회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거주지 불편 정도 : 편하다 240명(56.1%), 매우 편하다 104명(24.3%)으로 현재 거주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편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0.4%로 높게 나타났다.
- 지역사회 생활시 불편한 점 :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97명(24.9%), 의료기관 접근이 힘들 77명(18.7%), 사회복지시설 부족 53명(13.6%)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 자립 생활시 필요한 지원 : 소득지원 129명(34.5%),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 82명(21.9%), 이동편의 지원 40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4.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 장애인복지관 393명(69.6%), 장애인유관협회 43명(7.6%), 사회복지관 42명(7.4%)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시설 이용 시 힘든 점 : 힘든점 없음 247명(41.4%), 근접 가능한 시설 부족 88명(14.7%), 시설 프로그램 부족 83명(13.9%)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 내 추가 개설이 필요한 시설 : 장애인복지관 150명(24.5%), 자립생활 체험시설 90명(14.7%), 직업훈련(재활)시설 90명(14.7%), 보호작업장 40명(6.5%)으로 나타났다.

5. 건강·보조기기

○ 일반적인 건강 사항

- 하루 평균 식사 횟수는 3회가 345명(74.7%)로 나타났고 흡연유무는 비흡연자 413명(90.4%)으로 비흡연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흡연율은 낮게 나타났다.
- 음주 정도는 전혀 술을 못 마심 353명(77.1%), 월 1회 이하 38명(8.3%)로 나타났고 운동 여부는 주1~3회 181명(46.9%), 거의 매일 운동함 101명(26.2%)으로 조사 대상자는 전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기적 병원 진료 여부 : 진료받음 273명(57.8%), 진료받지 않음 199명(42.2%)으로 나타났다.

○ 만성질환(최근 3개월 이상 지속) : 있음 279명(60.8%), 없음 180명(37.9%)으로 나타났다으며, 주된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 및 저혈압 86명(18.7%),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78명(17.0%), 당뇨병 67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부분 : 건강검진비 지원 190명(26.3%), 이동 지원 110명(15.2%), 치료, 재활교육 및 정보제공 86명(11.9%)으로 나타났다.

○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 없다 333명(74.3%), 있다 115명(25.7%)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만족 58명(50.4%), 불만족 33명(28.7%), 매우 불만족 13명(11.3%), 매우 만족 11명(9.6%)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이유는 내 몸에 맞지 않음 28명(25.5%), 구입비용 과다 23명(20.9%), 성능 및 기능 저하 21명(19.1%), 신청 및 보급 절차의 어려움 10명(9.1%)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필요한 보조기구 : 이동 보조기구 98명(20.3%), 컴퓨터 사용 보조기구 75명(15.5%), 작업 및 학습 보조기구 49명(10.1%)으로 나타났다.

6. 평생교육

○ 평생교육 참여한 경험 : 없음 303명(65.4%), 있음 160명(34.6%)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참여하지 않은 경험보다 낮게 나타났다.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 장애인에게 적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보 160명(23.7%),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확충 120명(17.8%), 교육비지원 101명(14.9%) 순으로 나타났다.

○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 여가활동교육 144명(20%), 직업교육 117명(16.3%), 컴퓨터교육 110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7. 여가·문화생활

- 주로 참여하고 있는 여가 및 문화활동 : TV시청,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293명(39.5%), 집 근처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163명(22%), 친구 및 가족과의 모임 73명(9.9%)으로 나타났다.
- 여가 및 문화활동 하는데 어려운 점 : 경제적인 어려움 141명(20.6%), 이동의 어려움 131명(19.2%),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여가 프로그램의 부족 120명(17.5%) 순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여가 및 문화활동 : 영화, 음악회, 연극관람 181명(24.9%), 운동(요가, 헬스, 수영 등) 159명(21.9%), 등산, 여행, 문화탐방 139명(19.1%) 순으로 나타났다.

8. 직업생활

- 취업상태 :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음 305명(69%), 현재 일을 하고 있음 137명(31%)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월 평균임금 : 50만원 이하 75명(46.9%), 51~100만원 이하 39명(24.4%)으로 조사 대상자의 월 평균임금은 100만원 미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장애로 인해 일하기가 힘들어서 133명(35.0%), 적성이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51명(13.4%), 나를 고용하려는 직장이 없어서 51명(13.4%), 급여 등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41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 구직경로 :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174명(42.3%), 스스로 찾음 46명(11.2%),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단체를 통해서 42명(10.2%)으로 나타났다.
- 구직 시 어려운 점 : 건강문제 167명(27.1%), 자격요건이나 경험 및 기술의 부족 106명(17.2%),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101명(16.4%),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차별 때문에 58명(9.4%) 순으로 나타났다.
-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점 :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편견 137명(22.7%), 출퇴근 불편 문제 112명(18.5%), 저임금 90명(14.9%)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취업정보 제공 및 기회 확대 169명(24.9%),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작업장 마련 142명(20.9%), 직업교육 및 현장훈련 제공 58명(8.6%) 순으로 나타났다.

9. 연령대별 필요 서비스

-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 :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183명(27.4%),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 120명(18.0%), 방과 후 프로그램 95명(14.2%), 조기 개입 프로그램 79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 자립준비 프로그램 152명(21.1%),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119명(16.5%), 자기 결정 훈련 프로그램 98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 성인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175명(23.8%), 자립지원 프로그램 172명(23.4%), 문화여가 프로그램 78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 장년 및 노인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 반찬지원 123명(16.8%), 외출지원 122명(16.6%), 문화여가 서비스 102명(13.9%) 순으로 나타났다.

10. 사회관계, 삶의 만족 등

- 선호하는 소통방식 : 전화, 문자로 대화 278명(40.1%), 사회복지시설에서 소통 144명(20.7%), 약속한 후 대면하여 소통함 105명(15.1%) 순으로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
 - 건강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만족함 250명(56.4%), 경제상태는 매우 만족함/만족함 236명(51.60%)으로 조사대상자가 건강과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함/만족함 비율이 63.4% ~ 81.7%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받는 존중감에 대한 인식 : 존중받고 있는 편 270명(58.7%), 매우 존중받고 있는 편 61명(13.3%)으로 조사대상자의 72%가 주변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장애인 탈시설 관련 욕구조사

- 탈시설화 및 지역 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인식 :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대해 모름 365명 83.7%, 알고 있음 71명(16.3%)으로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탈시설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욕구에 대한 견해 : 탈시설 의지는 있지만 두려워함 145명(34.4%), 탈시설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음 107명(25.4%), 탈시설에 대한 의지가 불확실함 93명(22%), 탈시설 의지가 강함 77명(18.2%)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가능성에 대한 의견
 - 탈시설이 어려움 226명(56.9%), 탈시설이 가능함 171명(43.1%)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은 탈시설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 탈시설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중응답)는 경제적 자립 어려움 98명(41%), 사회적응 어려움 97명(40.6%), 의식주 해결 어려움 89명(37.2%), 건강 문제 74명(31%) 순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 추진 시 장애인에게 예상되는 어려움 : 탈시설 추진 시 장애인에게 예상되는 어려움(다중응답)은 경제적인 문제 243명(58.7%),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 165명(39.9%), 안정된 주거지 확보 140명(33.8%), 편의시설 부족 및 사회 편견 119명(28.7%) 순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 추진 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 탈시설 추진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다중응답)은 생활비 보조 215명(51.6%), 주택마련 203명(48.7%), 취업 등 일자리 지원 201명(48.2%), 활동지원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지원 159명(38.1%), 사회적응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지원 128명(30.7%) 순으로 나타났다.

12. 유형별 자기 결정 차이(교차분석)

-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차이
 - 집안일을 직접 수행하는 비율과 수행하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1.335$, $P<.001$). 남성은 집안일을 직접 한다(46.2%), 직접 하지 않는다(53.8%)로 나타났지만 여성은 집안일을 직접 한다(67.6%), 직접 하지 않는다(32.4%)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거주시설 입소를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 자립생활을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 정기 병원 진료를 받는 비율과 받지 않는 비율, 취업 비율과 비취업 비율,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인식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차이

- 집안일을 직접 수행하는 비율과 수행하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073$, $P<.01$). 정신적 장애인은 집안일을 직접 한다(46.0%), 직접 하지 않는다(54.0%)로 나타났지만, 신체적 장애인은 집안일을 직접 한다(62.5%), 직접 하지 않는다(37.5%)로 나타났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입소를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 자립생활을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인식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는 비율과 받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083$, $P<.001$). 정신적 장애인은 정기 진료를 받는다(49.0%), 받지 않는다(51.0%)로 나타났지만, 신체적 장애인은 정기 진료를 받는다(64.5%), 받지 않는다(35.5%)로 나타났다.
- 취업 비율과 비취업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233$, $P<.01$). 정신적 장애인은 취업(24.3%), 비취업(75.7%)으로 나타났지만, 신체적 장애인은 취업(36.5%), 비취업(63.5%)으로 나타났다.

○ 장애정도에 따른 주요변수의 비율차이

- 장애정도에 따라 집안일을 직접 수행하는 비율과 수행하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216$, $P<.01$). 중증장애인은 집안일을 직접 한다(50.3%), 직접 하지 않는다(49.7%)로 나타났지만, 경증장애인은 집안일을 직접 한다(65.6%), 직접 하지 않는다(34.4%)로 나타났다.
- 장애정도에 따라 거주시설 입소를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 자립생활을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 정기 병원 진료를 받는 비율과 받지 않는 비율,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인식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정도에 따라 취업 비율과 비취업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650$, $P<.05$). 중증장애인은 취업(27.1%), 비취업(72.9%)으로 나타났지만, 경증장애인은 취업(37.8%), 비취업(62.2%)으로 나타났다.

○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 차이

-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른 집안일을 직접 수행하는 비율과 수행하지 않는 비율, 자립생활을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 정기진료를 받는 비율과 받지 않는 비율,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인식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거주시설 입소를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894$, $P<.05$). 수급자는 거주시설 입소를 원한다(20.5%), 원하지 않는다(79.5%)로 나타났지만, 비수급자는 거주시설 입소를 원한다(10.6%), 원하지 않는다(89.4%)로 나타났다.
- 취업 비율과 비취업 비율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533$, $P<.01$), 수급자는 취업(23.2%), 비취업(76.8%)으로 나타났지만, 비수급자는 취업(38.4%), 비취업(61.6%)으로 나타났다.

13. 주요변수의 평균값의 차이(t-검정)

○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 성별에 따른 월평균 임금, 건강에 대한 만족,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 장애유형에 따른 월평균 임금($t=-3.096$, $p<.01$), 건강에 대한 만족($t=6.842$, $p<.001$),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t=4.002$, $p<.001$),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t=4.048$, $p<.001$),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t=2.02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월평균 임금은 정신적 장애인(1.64)보다 신체적 장애인(2.28)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건강에 대한 만족은 정신적 장애인(2.85), 신체적 장애인(2.35),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은 정신적 장애인(2.65), 신체적 장애인(2.36)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은 정신적 장애인(2.92), 신체적 장애인(2.67)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은 정신적 장애인(2.75), 신체적 장애인(2.6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건강, 경제상태, 주거환경,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은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수준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 장애수준에 따른 건강에 대한 만족($t=2.215$, $p<.05$),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t=3.104$, $p<.01$),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t=2.904$,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건강에 대한 만족은 중증장애(2.62), 경증장애(2.43)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은 중증장애(2.57), 경증장애(2.33)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은 중증장애(2.84), 경증장애(2.64)로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은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 국민기초수급여부에 따른 월평균 임금($t=-3.723$, $p<.001$),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t=-2.802$, $p<.01$),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t=-3.034$, $p<.01$),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t=-3.695$,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월평균 임금 수급자(1.61), 비수급자(2.35)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수급자(2.69), 비수급자(2.86)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수급자(2.87), 비수급자(3.07)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 수급자(2.68), 비수급자(2.92)로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 가족환경에 대한 만족,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는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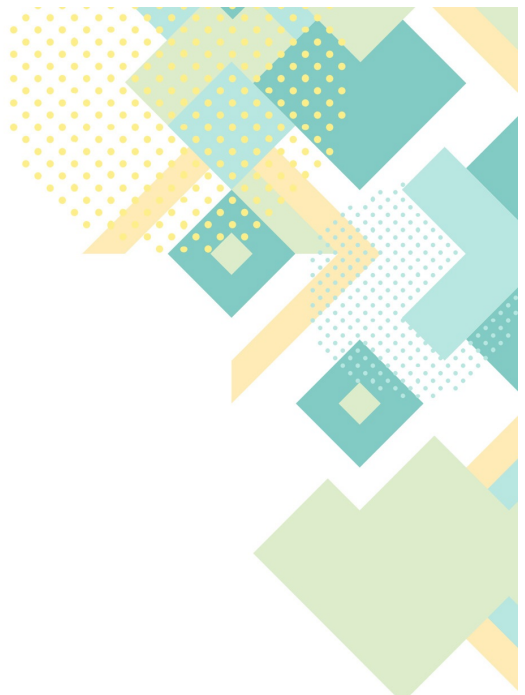
14. 다중회귀분석

○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유형($\beta=-.239$, $p<.05$), 수급자 여부($\beta=.184$, $p<.05$), 현 거주지의 편리함($\beta=.230$, $p=.01$),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beta=.580$, $p<.001$)가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정신적 장애인일수록, 비수급자일수록, 거주지가 편하다고 인식할수록, 타인에 의해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조사 대상자의 삶의 만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조사대상자의 탈시설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유형($\beta=.155$, $p<.05$), 평생교육($\beta=.172$, $p<.01$), 출생년도($\beta=.198$, $p<.01$),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beta=.198$, $p<.001$),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beta=-.188$, $p<.01$)이 탈시설화 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신체적 장애인일수록, 평생교육을 받고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타인에 의한 존중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감이 낮을수록 탈시설화 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욕구조사 개요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I. 욕구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장애 당사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전라남도 장애인 인구는 2020년 기준 140,942명으로 인구 대비 비율은 7.6%(전국 5.1%)이다. 시 지역의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6.1%, 군지역은 9.6%로 군지역이 시 지역 보다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3.5% 높은 상황(2021년 전남 사회조사표)이다.
- 나주시에 위치한 도립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포함한 16개 시군에 18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6개 시군(함평군, 신안군, 화순군, 곡성군, 영광군, 장흥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별 장애인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 본 조사를 수행하는 목적은 전라남도 거주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일상생활, 교육, 직업, 이동편의, 생활 만족, 복지욕구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에 근거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 정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조사기간

- 2021년 11월 8일 ~ 2021년 11월 17일 (10일)

나. 조사대상

-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거주 장애인 483명

다. 조사내용

- 전라남도 지역 장애인 조사(12가지 영역 53문항)
 - 일반영역 12, 일상생활 3, 자립생활 4, 사회복지 시설 이용 3, 건강·보조기기 6, 평생교육 3, 여가·문화생활 3, 직업생활 5, 연령대별 필요 서비스 4, 사회관계, 삶의 만족 등 5, 장애인 탈시설 관련 5

라. 표본

1) 표본선정

- 표본추출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역 거주 장애인을 무작위 추출 방법을 사용했다.

2) 조사방법

- 우편 설문조사 : 전라남도 내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단체의 협조 하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 재가 장애인 48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고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마. 자료 분석

- SPSS18.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다중응답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T-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조사결과



II.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가. 성별

-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483명의 장애인 중 남성 259명(53.6%), 여성 224명(46.4%)으로 나타났다.

〈표1〉 성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남성	259	53.6	A bar chart with two bars. The first bar, labeled '남성' (Male), has a value of 53.6%. The second bar, labeled '여성' (Female), has a value of 46.4%.
여성	224	46.4	
합계	483	100	

나. 출생년도

- 출생년도는 1930년대에서 2010년대 사이로 나타났다.
- 출생년도 분포는 1990년대 80명(18.1%), 1950년대 77명(17.5%), 1960년대 74명(16.8%), 1970년대 63명(14.3%), 1980년대 55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출생년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1930년대	10	2.3	A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the distribution of birth years. The bars are labeled with the decade and its corresponding percentage: 2010년대 (2.7%), 2000년대 (5.9%), 1990년대 (18.1%), 1980년대 (12.5%), 1970년대 (14.3%), 1960년대 (16.8%), 1950년대 (17.5%), 1940년대 (10.0%), and 1930년대 (2.3%).
1940년대	44	10	
1950년대	77	17.5	
1960년대	74	16.8	
1970년대	63	14.3	
1980년대	55	12.5	
1990년대	80	18.1	
2000년대	26	5.9	
2010년대	12	2.7	
합계	441	100	

다. 학력

-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80명(38.7%), 초등학교 졸업 62명(13.3%), 대학교 졸업 55명(11.8%), 중학교 졸업 53명(11.4%), 미취학 44명(9.5%) 순으로 나타났다.

〈표3〉 학력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미취학	44	9.5	
초등학교 재학	26	5.6	
초등학교 졸업	62	13.3	
중학교 재학	18	3.9	
중학교 졸업	53	11.4	
고등학교 재학	24	5.2	
고등학교 졸업	180	38.7	
대학교 재학	3	0.6	
대학교 졸업	55	11.8	
합계	465	100	

라. 장애 등록 유무

- 장애 등록자 453명(99.1%), 미등록자 4명(0.95%)으로 나타났다.

〈표4〉 장애 등록 유무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장애 등록자	453	99.1	
장애 미등록자	4	0.9	
합계	457	100	

마. 장애 유형

-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176명(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146명(31%), 뇌병변장애 60명(12.7%), 청각장애 30명(6.4%), 시각장애 21명(4.5%) 순으로 나타났다.

〈표5〉 장애유형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지적장애	176	37.4	
자폐성 장애	9	1.9	
정신장애	16	3.4	
안면장애	1	0.2	
뇌병변장애	60	12.7	
청각장애	30	6.4	
언어장애	2	0.4	
지체장애	146	31.0	
시각장애	21	4.5	
신장장애	2	0.4	
뇌전증	5	1.1	
없음	3	0.6	
합계	471	100	

- 대분류로 구분하면 신체적 장애 267명(57.1%), 정신적 장애 201명(42.9%)으로 나타났다.

〈표6〉 장애유형(대분류)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정신적 장애	201	42.9	
신체적 장애	267	57.1	
합계	468	100	

바. 장애 정도

-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인 319명(70.6%), 심하지 않은 장애인 133명(29.4%)으로 나타났다.

〈표7〉 장애정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심한장애	319	70.6	70.6% 29.4% 중증_심한 장애 경증_심하지 않은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133	29.4	
합계	452	100	

사.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는 수급자가 아님 241명(51.8%), 수급자 182명(39.1%), 차상위계층 42명(9%)으로 나타났다.

〈표8〉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기초생활수급자	182	39.1	39.1% 9.0% 51.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아님
차상위계층	42	9	
수급자가 아님	241	51.8	
합계	465	100	

아. 가족 수 및 구성형태

- 2명 112가족(24.8%), 4명 99가족(22%), 3명 87가족(19.3%), 1명 85가족(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9명 이상인 가족도 2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가족수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1명	85	18.8	
2명	112	24.8	
3명	87	19.3	
4명	99	22	
5명	40	8.9	
6명	16	3.5	
7명	6	1.3	
8명	4	0.9	
9명	2	0.4	
합계	451	100	

- 가족 중 장애인 수는 1명 262가족(71.4%), 2명 77가족(21%), 3명 19가족(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이 5명이라고 응답한 가족도 3가족(0.8%)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가족 중 장애인 수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1명	262	71.4	
2명	77	21	
3명	19	5.2	
4명	6	1.6	
5명	3	0.8	
합계	367	100	

자. 거주 지역

- 전라남도 전체 22개 시군에 설문을 시행하여 전체적으로 균등한 분포(2.9~6.8%)를 나타내었다.

〈표11〉 지역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목포시	33	6.8	
여수시	20	4.1	
순천시	26	5.4	
나주시	20	4.1	
광양시	32	6.6	
담양군	22	4.6	
곡성군	15	3.1	
구례군	16	3.3	
고흥군	23	4.8	
보성군	21	4.3	
화순군	20	4.1	
장흥군	14	2.9	
강진군	20	4.1	
해남군	19	3.9	
영암군	17	3.5	
무안군	24	5	
함평군	30	6.2	
영광군	21	4.3	
장성군	22	4.6	
완도군	24	5	
진도군	25	5.2	
신안군	19	3.9	
합계	483	100	

2. 일상생활

가. 일상생활 수행

- 일상생활 수행에 대한 응답 결과 내가한다 259명(56.1%), 내가 하지 않는다 203명(43.9%)으로 나타났다.

〈표12〉 일상생활 수행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내가 한다	259	56.1	
내가 하지 않는다	203	43.9	
합계	462	100	

- 일상생활 수행 부담 정도는 부담되지 않음 109명(37.2%), 부담됨 99명(33.8%), 전혀 부담되지 않음 66명(22.5%), 매우 부담됨 19명(6.5%) 순으로 나타났다.

〈표13〉 일상생활 수행 부담 정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전혀 부담되지 않음	66	22.5	
부담되지 않음	109	37.2	
부담됨	99	33.8	
매우 부담됨	19	6.5	
합계	293	100	

나. 일상생활 원조자

- 일상생활 원조자는 부모 147명(27.5%), 활동지원사 106명(19.9%), 배우자 95명(17.8%), 기타 46명(8.6%), 사회복지사 39명(7.3%) 순으로 나타났다.

〈표14〉 일상생활 원조자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유료 간병인 및 봉사원	3	0.6	
활동지원사	106	19.9	
무료 간병인 및 가정봉사원	3	0.6	
요양보호사	25	4.7	
사회복지사	39	7.3	
종교단체 관계자	7	1.3	
부모	147	27.5	
배우자	95	17.8	
형제자매	34	6.4	
친척	6	1.1	
친구나 이웃	23	4.3	
기타	46	8.6	
합계	534	100.0	
			유료 간병인 및 봉사원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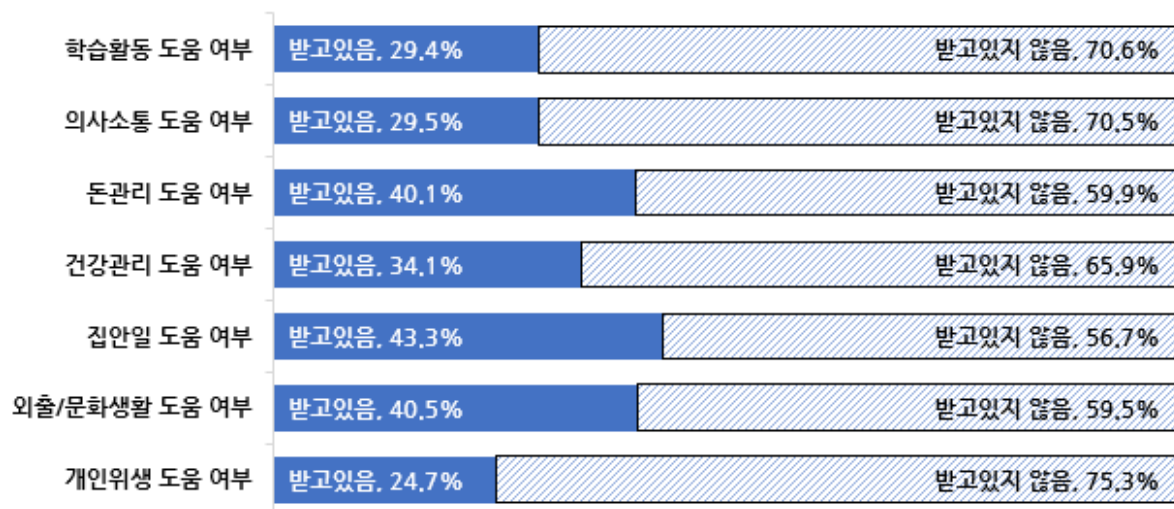
3) 현재 받고 있는 일상생활 도움 및 충분 정도

- 현재 받고 있는 일상생활 도움은 집안일 도움 183명(43.3%), 외출·문화생활 도움 172명(40.5%), 돈 관리 도움 169명(40.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위생 도움 106명(24.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15〉 현재 받고 있는 일상생활 도움

구분	개인위생 도움 여부		외출/문화생 활 도움 여부		집안일 도움 여부		건강관리 도움 여부		돈관리 도움 여부		의사소통 도움 여부		학습활동 도움 여부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받고 있음	106	24.7	172	40.5	183	43.3	142	34.1	169	40.1	122	29.5	121	29.4
받고있 지 않음	323	75.3	253	59.5	240	56.7	274	65.9	252	59.9	292	70.5	291	70.6
합계	429	100	425	100	423	100	416	100	421	100	414	100	412	100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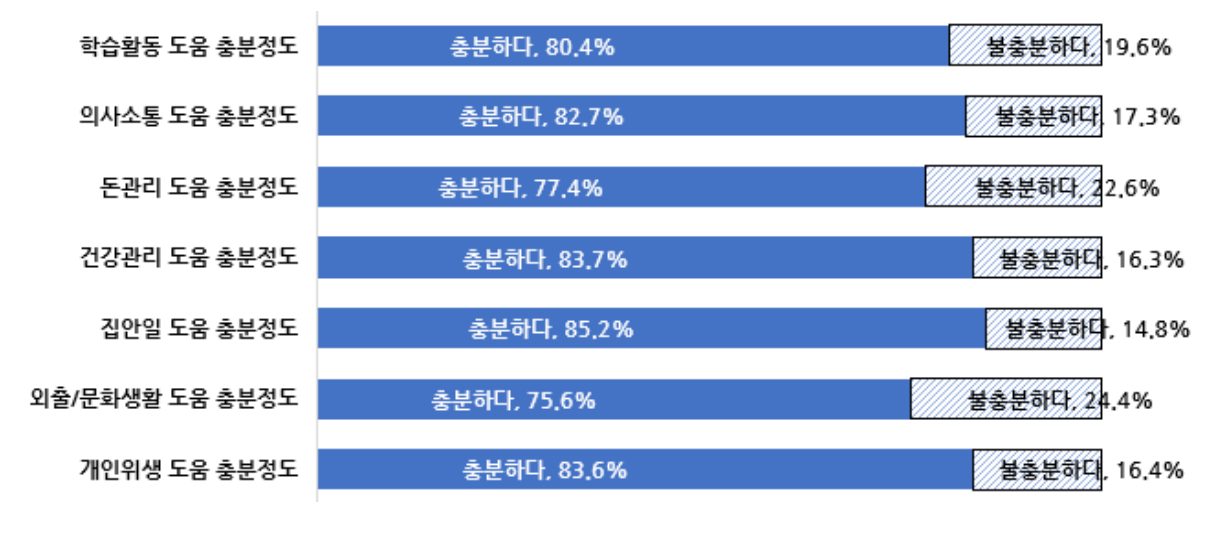


- 현재 받고 있는 일상생활 도움 충분 정도는 집안일 도움 충분하다 167명(85.2%), 건강관리 도움 충분하다 159명(83.7%), 개인위생 도움 충분하다 143명(8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출·문화생활 도움 불충분하다 49명(24.4%)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외부활동 도움이 가장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표16〉 현재 받고 있는 일상생활 도움 충분 정도

구분	개인위생 도움 여부		외출/문화생 활 도움 여부		집안일 도움 여부		건강관리 도움 여부		돈관리 도움 여부		의사소통 도움 여부		학습활동 도움 여부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충분 하다	143	83.6	152	75.6	167	85.2	159	83.7	151	77.4	153	82.7	148	80.4
불충분 하다	28	16.4	49	24.4	29	14.8	31	16.3	44	22.6	32	17.3	36	19.6
합계	171	100	201	100	196	100	190	100	195	100	185	100	184	100

그래프



3. 자립생활

가. 장애 성인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 장애인 성인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인척 360명(96.3%), 장애인 동료들(거주시설) 14명(3.7%)으로 나타났다.

〈표17〉 장애 성인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가족이나 친인척	360	96.3	
장애인 동료들	14	3.7	
합계	374	100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희망은 원하지 않는다 277명(83.9%), 원한다 53명(16.1%)으로 나타나 장애인은 거주시설 입소보다는 지역사회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희망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원한다	53	16.1	
원하지 않는다	277	83.9	
합계	330	100	

나. 현재 거주지 불편 정도

- 현재 거주지 불편 정도는 편하다 240명(56.1%), 매우 편하다 104명(24.3%)으로 나타나 현재 거주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편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0.4%로 높게 나타났다.

〈표19〉 현재 거주지 불편 정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매우 불편하다	12	2.8	
불편하다	72	16.8	
편하다	240	56.1	
매우 편하다	104	24.3	
합계	428	100	

다. 지역사회 생활시 불편한 점

- 지역사회생활 시 불편한 점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97명(24.9%), 의료기관 접근이 힘들 77명(18.7%), 사회복지시설 부족 53명(13.6%)으로 나타났다.

〈표20〉 지역사회 생활시 불편한 점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시장, 마트, 은행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52	13.3	
녹지공간 및 공원 부족	29	7.4	
의료기관 접근이 힘들	73	18.7	
사회복지시설 부족	53	13.6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97	24.9	
기타	86	22.1	
합계	390	100	

라. 지역사회 자립 생활시 필요한 지원

- 지역사회 자립 생활 시 필요한 지원으로 소득지원 129명(34.5%),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 82명(21.9%), 이동편의 지원 40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표21〉 지역사회 생활시 불편한 점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소득지원	129	34.5	기타 5.1% 보조기기 지원 2.7% 일상생활활동 지원 10.4% 주거지원 4.8% 이동편의 지원 10.7%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 21.9% 의료재활 지원 9.9% 소득지원 34.5%
의료재활 지원	37	9.9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	82	21.9	
이동편의 지원	40	10.7	
주거지원	18	4.8	
일상생활활동 지원	39	10.4	
보조기기 지원	10	2.7	
기타	19	5.1	
합계	374	100	

4. 사회복지 시설 이용

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 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시설로 장애인복지관 393명(69.6%), 장애인유관협회 43명(7.6%), 사회복지관 42명(7.4%) 순으로 나타났다.

〈표22〉 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장애인복지관	393	69.6	
사회복지관	42	7.4	
주간보호센터	13	2.3	
생활시설(거주시설)	21	3.7	
보호작업장	9	1.6	
정신장애인시설	7	1.2	
장애인유관협회	43	7.6	
기타	37	6.5	
합계	565	100	

나. 장애인시설 이용 시 힘든 점

- 장애인시설 이용 시 힘든 점은 힘든 점 없음 247명(41.4%), 근접 가능한 시설 부족 88명(14.7%), 시설 프로그램 부족 83명(13.9%) 순으로 나타났다.

〈표23〉 장애인시설 이용 시 힘든 점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힘든점 없음	247	41.4	
시설 프로그램 부족	83	13.9	
이용가능한 시설 부족	50	8.4	
근접가능한 시설 부족	88	14.7	
시설의 거절	6	1.0	
비용부담	17	2.8	
장기간의 대기	14	2.3	
일회성 서비스 제공	21	3.5	
장애인 관리 미흡	29	4.9	
기타	42	7.0	
합계	597	100	

다. 지역내 추가 개설이 필요한 시설

- 지역 내 추가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50명(24.5%), 자립생활 체험시설 90명(14.7%), 직업훈련(재활) 시설 90명(14.7%), 보호작업장 40명(6.5%)으로 나타났다.

〈표24〉 지역내 추가 개설이 필요한 시설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장애인복지관	150	24.5	
사회복지관	33	5.4	
주간보호센터	34	5.6	
경증장애인 거주시설	24	3.9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5	4.1	
자립생활 체험시설	90	14.7	
직업훈련(재활)시설	90	14.7	
보호작업장	40	6.5	
발달재활치료 전문시설	65	10.6	
기타	60	9.8	
합계	611	100	

5. 건강·보조기기

가. 일반적인 건강 사항

- 하루 평균 식사 횟수는 3회가 345명(74.7%)으로 나타났고 흡연 유무는 비흡연자 413명(90.4%)으로 비흡연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흡연율은 낮게 나타났다.
- 음주 정도는 전혀 술을 못 마심 353명(77.1%), 월 1회 이하 38명(8.3%)으로 나타났고, 운동 여부는 주1~3회 181명(46.9%), 거의 매일 운동함 101명(26.2%)으로 조사대상자는 전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5〉 일반적인 건강 사항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하루평균 식사 횟수	1회	9	1.9	
	2회	96	20.8	
	3회	345	74.7	
	4회이상	12	2.6	
	합계	462	100	
흡연 유무	비흡연자	413	90.4	
	흡연자	44	9.6	
	합계	457	100	
음주 정도	전혀 술을 못마심	353	77.1	
	월 1회 이하	38	8.3	
	월 2~3회	31	6.8	
	주 1~2회	19	4.1	
	주 3~4회	11	2.4	
	거의 매일 술을 마심	6	1.3	
	합계	458	100	
운동여부 (30분 이상)	전혀 운동하지 않음	104	26.9	
	주1~3회	181	46.9	
	거의 매일 운동함	101	26.2	
	합계	386	100	

나. 정기적 병원 진료 여부

- 정기적 병원 진료 여부는 진료 받음 273명(57.8%), 진료받지 않음 199명(42.2%)으로 나타났다.

〈표26〉 정기적 병원 진료 여부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진료받음	273	57.8	
진료받지 않음	199	42.2	
합계	472	100	

다. 만성질환(최근 3개월 이상 지속)

- 만성질환은 있음 279명(60.8%), 없음 180명(39.2%)으로 나타났다.

〈표27〉 만성질환 유무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있음	1개	168	
	2개	71	
	3개	19	
	4개 이상	21	
	계	279	
없음	180	39.2	
합계	459	100	

- 주된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 및 저혈압 86명(18.7%),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78명(17.0%), 당뇨병 67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표28〉 주된 만성질환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치과질환	66	14.4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78	17.0	
당뇨병	67	14.6	
고혈압 및 저혈압	86	18.7	
위암, 간암, 폐암등	6	1.3	
갑상선질환	3	0.7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20	4.4	
천식, 만성기관지염	9	2.0	
정신질환(우울증등)	27	5.9	
심근경색, 협심증	19	4.1	
간경변, 만성간염	5	1.1	
녹내장, 백내장등	20	4.4	
중풍, 뇌혈관질환	18	3.9	
기타	40	8.7	

라.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부분

- 건강검진비 지원 190명(26.3%), 이동지원 110명(15.2%), 치료, 재활교육 및 정보 제공 86명(11.9%)으로 나타났다.

〈표29〉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부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건강검진비 지원	190	26.3	
이동지원	110	15.2	
체육시설 이용 지원(할인 혜택등)	89	12.3	
건강검진센터 내 장애인전문요원 배치	65	9.0	
서비스제공자의 장애인인식 개선	29	4.0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등	78	10.8	
병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53	7.3	
치료·재활교육 및 정보제공	86	11.9	
기타	22	3.0	
합계	722	100	

마.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 보조기구는 없다 333명(74.3%), 있다 115명(25.7%)으로 나타났다.

〈표30〉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있다	115	25.7	
없다	333	74.3	
합계	448	100	

-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만족도는 만족 58명(50.4%), 불만족 33명(28.7%), 매우 불만족 13명(11.3%), 매우 만족 11명(9.6%) 순으로 나타났다.

〈표31〉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만족도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매우 불만족	13	11.3	
불만족	33	28.7	
만족	58	50.4	
매우 만족	11	9.6	
합계	115	100	

- 보조기구 불만족 이유는 내 몸에 맞지 않음 28명(25.5%), 구입비용 과다 23명(20.9%), 성능 및 기능 저하 21명(19.1%), 신청 및 보급 절차의 어려움 10명(9.1%) 순으로 나타났다.

〈표32〉 보조기구 불만족이유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성능 및 기능저하	21	19.1%	
내 몸에 맞지 않음	28	25.5%	
구입비용 과다	23	20.9%	
A/S가 잘 되지 않음	7	6.4%	
수리비용 과다	8	7.3%	
신청 및 보급절차의 어려움	10	9.1%	
보조기기 이용시 장시간 대기문제	3	2.7%	
기타	10	9.1%	
합계	110	100.0%	

바. 현재 필요한 보조기구

- 현재 필요한 보조기구는 이동 보조기구 98명(20.3%), 컴퓨터 사용 보조기구 75명(15.5%), 작업 및 학습 보조기구 49명(10.1%)으로 나타났다.

〈표33〉 현재 필요한 보조기구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이동 보조기구	98	20.3	기타 22.4% 청각장애인용보조기구 4.8% 시각장애인용보조기구 3.1% 작업및학습보조기구 10.1% 의사소통보조기구 5.0% 컴퓨터사용보조기구 15.5% 일상생활보조기구 9.7% 자세보조기구 4.6% 이동보조기구 20.3%
자세 보조기구	22	4.6	
일상생활 보조기구	47	9.7	
컴퓨터 사용 보조기구	75	15.5	
의사소통 보조기구	24	5	
작업 및 학습 보조기구	49	10.1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구	15	3.1	
청각장애인용 보조기구	23	4.8	
기타	108	22.4	

6. 평생교육

가. 평생교육 참여한 경험

- 평생교육 참여한 경험은 없음 303명(65.4%), 있음 160명(34.6%)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참여하지 않은 경험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34〉 평생교육 참여한 경험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있음	160	34.6		65.4%
없음	303	65.4		
합계	463	100	있음	없음

나.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보 160명(23.7%),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확충 120명(17.8%), 교육비 지원 101명(14.9%) 순으로 나타났다.

〈표35〉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확충	120	17.8		3.4%
평생교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71	10.5		8.6%
장애인에게 적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보	160	23.7		10.5%
교육비지원	101	14.9		10.7%
접근성, 이동권 보장	72	10.7		14.9%
평생교육 정보안내 및 설명	71	10.5		23.7%
장애인 평생교육전문시설 설립	58	8.6		10.5%
기타	23	3.4		17.8%
합계	676	100		

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여가 활동 교육 144명(20%), 직업교육 117명(16.3%), 컴퓨터 교육 110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표36〉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한글교육(읽기, 쓰기 등)	73	10.1	기타 3.2% 사회참여교육(인권향상, 권리증진 등) 4.9% 학력보완교육(초, 중, 고 졸업장 취득) 2.1% 자립생활교육(일상생활, 요리, 관공서 이용 등) 13.1% 여가활동교육(여행, 사진, 영화 등) 20.0% 컴퓨터교육(인터넷, 스마트폰 등) 15.3% 예술교육(미술, 음악, 만들기 등) 15.1% 직업교육(직업기술, 취업 등) 16.3% 한글교육(읽기, 쓰기 등) 10.1%
직업교육(직업기술, 취업 등)	117	16.3	
예술교육(미술, 음악, 만들기 등)	109	15.1	
컴퓨터교육(인터넷, 스마트폰 등)	110	15.3	
여가활동 교육(여행, 사진, 영화 등)	144	20.0	
자립생활 교육(일상생활, 요리, 관공서 이용 등)	94	13.1	
학력 보완교육(초, 중, 고 졸업장 취득)	15	2.1	
사회참여 교육(인권 향상, 권리증진 등)	35	4.9	
기타	23	3.2	
합계	720	100	

7. 여가·문화생활

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여가 및 문화활동

- 주로 참여하고 있는 여가 및 문화활동은 TV 시청,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293명 (39.5%), 집 근처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163명(22%), 친구 및 가족과의 모임 73명(9.9%)으로 나타났다.

〈표37〉 주로 참여하고 있는 여가 및 문화활동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TV 시청,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293	39.5	
친구 및 가족과의 모임	73	9.9	
집 근처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163	22.0	
영화, 연극, 연주회 등 관람	46	6.2	
동식물 키우기	39	5.3	
악기 연주, 그림 춤추기 등의 예술활동	33	4.5	
종교활동	63	8.5	
기타	31	4.2	
합계	741	100	

나. 여가 및 문화 활동하는 데 어려운 점

- 여가 및 문화 활동하는 데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 141명(20.6%), 이동의 어려움 131명(19.2%)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여가 프로그램의 부족 120명(17.5%) 순으로 나타났다.

〈표38〉 여가 및 문화 활동하는 데 어려운 점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경제적인 어려움	141	20.6	
이동의 어려움	131	19.2	
장애 및 재활로 인한 여가활동 참여의 어려움	78	11.4	
불안감 및 자신감 부족	52	7.6	
여가생활에 관심이 없음	41	6.0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여가프로그램의 부족	120	17.5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75	11.0	
기타	46	6.7	
합계	684	100	

다.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여가 및 문화 활동

-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여가 및 문화 활동은 영화, 음악회, 연극관람 181명(24.9%), 운동(요가, 헬스, 수영 등) 159명(21.9%), 등산, 여행, 문화탐방 139명(19.1%) 순으로 나타났다.

〈표39〉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여가 및 문화 활동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영화, 음악회, 연극관람	181	24.9	
운동(요가, 헬스, 수영 등)	159	21.9	
등산, 여행, 문화탐방	139	19.1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98	13.5	
자기 개발(자격증 취득 및 학교 교육)	50	6.9	
봉사활동	26	3.6	
사교모임(친구 만들기, 동호회 등)	44	6.1	
기타	30	4.1	
합계	727	100	

8. 직업생활

가. 취업상태

- 취업상태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음 305명(69%), 현재 일을 하고 있음 137명(31%)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0〉 취업상태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현재 일을 하고 있음	137	31	31.0% 69.0% 현재 일을 하고 있음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음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음	305	69	
합계	442	100	

나. 월 평균임금

- 월 평균 임금은 50만 원 이하 75명(46.9%), 51~100만 원 이하 39명(24.4%)으로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임금은 100만 원 미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1〉 월 평균임금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50만원 이하	75	46.9	301~400만원 이하 0.6% 201~300만원 이하 3.8% 151~200만원 이하 14.4% 101~150만원 이하 10.0% 51~100만원 이하 24.4% 50만원 이하 46.9%
51~100만원 이하	39	24.4	
101~150만원 이하	16	10	
151~200만원 이하	23	14.4	
201~300만원 이하	6	3.8	
301~400만원 이하	1	0.6	
합계	160	100	

다.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장애로 인해 일하기가 힘들어서 133명(35.0%), 적성이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51명(13.4%), 나를 고용하려는 직장이 없어서 51명(13.4%), 급여 등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41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표42〉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적성이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51	13.4	
급여 등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41	10.8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11	2.9	
자녀양육 때문에	7	1.8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로	8	2.1	
교육 및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22	5.8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	24	6.3	
나를 고용하려는 직장이 없어서	51	13.4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힘들어서	133	35.0	
기타	32	8.4	
합계	380	100	

라. 구직경로

- 구직경로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174명(42.3%), 스스로 찾음 46명(11.2%),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단체를 통해서 42명(10.2%)으로 나타났다.

〈표43〉 구직경로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174	42.3	기타 19.5% 스스로 찾음 11.2% 가족이나 친지, 이웃의 소개를 통해서 8.0% 도청, 시군구청을 통해서 5.1% 시설직업소개소를 통해서 0.7% 장애인관련시설이나 단체를 통해서 10.2%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2.9%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42.3%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12	2.9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단체를 통해서	42	10.2	
시설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3	0.7	
도청, 시군구청을 통해서	21	5.1	
가족이나 친지, 이웃의 소개를 통해서	33	8.0	
스스로 찾음	46	11.2	
기타	80	19.5	
합계	411	100	

마. 구직 시 어려운 점

- 구직 시 어려운 점으로는 건강문제 167명(27.1%), 자격요건이나 경험 및 기술의 부족 106명(17.2%),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101명(16.4%),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차별 때문에 58명(9.4%) 순으로 나타났다.

〈표44〉 구직 시 어려운 점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건강문제	167	27.1	기타 8.8% 시간대, 임금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7.5%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 및 차별때문에 9.4% 가족 및 지인의 반대로 2.8% 학업 및 직업훈련등에 참여하고 있어서 3.1% 복지혜택 수급에 영향을 미칠까봐 7.8% 자격요건이나 경험 및 기술의 부족 17.2%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16.4% 건강문제 27.1%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101	16.4	
자격요건이나 경험 및 기술의 부족	106	17.2	
복지혜택 수급에 영향을 미칠까 봐	48	7.8	
학업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어서	19	3.1	
가족 및 지인의 반대로	17	2.8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차별 때문에	58	9.4	
시간대, 임금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46	7.5	
기타	54	8.8	
합계	616	100	

바.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점

-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편견 137명 (22.7%), 출퇴근 불편 문제 112명(18.5%), 저임금 문제 90명(14.9%) 순으로 나타났다.

〈표45〉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점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저임금	90	14.9	
출퇴근 불편문제	112	18.5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편견	137	22.7	
업무능력과 적성이 맞지 않음	59	9.8	
직장상사 및 동료관계의 어려움	34	5.6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직업환경	86	14.2	
기타	86	14.2	
합계	604	100	

사.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취업정보 제공 및 기회 확대 169명(24.9%),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작업장 마련 142명(20.9%), 직업교육 및 현장훈련 제공 58명(8.6%) 순으로 나타났다.

〈표46〉 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취업정보 제공 및 기회 확대	169	24.9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작업장 마련	142	20.9	
이력서 작성, 면접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39	5.8	
채용과정에서의 편의제공(시험시간 연장 등)	29	4.3	
전무 기관의 구직상담, 취업알선	54	8.0	
창업지원 제공	29	4.3	
고등교육 참여를 위한 특별전형 확대	21	3.1	
장애인 채용 가산점 제공	27	4.0	
직업교육 및 현장훈련 제공	58	8.6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57	8.4	
기타	53	7.8	
합계	678	100	

9. 연령대별 필요 서비스

가.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

-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183명(27.4%),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 120명(18.0%), 방과 후 프로그램 95명(14.2%), 조기 개입 프로그램 79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표47〉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조기개입프로그램	79	11.8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183	27.4	
타 영역 협력 프로그램	45	6.7	
방과 후 프로그램	95	14.2	
또래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120	18.0	
신체기능 향상 교육	53	7.9	
가족지원 프로그램	68	10.2	
기타	24	3.6	
합계	667	100	

나. 장애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 장애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자립준비 프로그램 152명(21.1%),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119명(16.5%), 자기 결정 훈련 프로그램 98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표48〉 장애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자립준비 프로그램	152	21.1	
자기 결정 훈련 프로그램	98	13.6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119	16.5	
방과 후 프로그램	53	7.4	
또래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85	11.8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46	6.4	
주말 나들이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28	3.9	
방학기간 프로그램	34	4.7	
장애인 인식 프로그램	31	4.3	
가족지원 프로그램	42	5.8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15	2.1	
기타	18	2.5	
합계	721	100	

다. 성인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 성인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175명(23.8%), 자립 지원 프로그램 172명(23.4%), 문화여가 프로그램 78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표49〉 성인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자립지원 프로그램	172	23.4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175	23.8	
평생교육 프로그램	74	10.1	
문화여가 프로그램	78	10.6	
케어 서비스	37	5.0	
가족지원 프로그램	39	5.3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35	4.8	
생계비, 생필품 지원 서비스	73	9.9	
후견 지원사업	15	2.0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서비스	26	3.5	
기타	12	1.6	
합계	736	100	

라. 장년 및 노인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 장년 및 노인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반찬지원 123명(16.8%), 외출지원 122명(16.6%), 문화여가 서비스 102명(13.9%) 순으로 나타났다.

〈표50〉 장년 및 노인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외출지원	122	16.6	
이미용	62	8.4	
세탁지원	56	7.6	
현물지원	89	12.1	
반찬지원	123	16.8	
문화여가서비스	102	13.9	
의약품, 방역물품 지원	50	6.8	
상담 및 안부전화	51	6.9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70	9.5	
기타	9	1.2	
합계	734	100	

10. 사회관계, 삶의 만족 등

가. 선호하는 소통방식

-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소통방식으로는 전화, 문자로 대화 278명(40.1%), 사회복지 시설에서 소통 144명(20.7%), 약속한 후 대면하여 소통함 105명(15.1%) 순으로 나타났다.

〈표51〉 선호하는 소통방식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전화, 문자로 대화	278	40.1	기타 1.9% 거의 소통하지 않음 6.8% 장애인협회 활동을 통해 소통 7.9% 사회복지시설에서 소통 20.7% 약속한 후 대면하여 소통함 15.1% SNS 7.5% 전화, 문자로 대화 40.1%
SNS	52	7.5	
약속한 후 대면하여 소통함	105	15.1	
사회복지시설에서 소통	144	20.7	
장애인협회 활동을 통해 소통	55	7.9	
거의 소통하지 않음	47	6.8	
기타	13	1.9	
합계	69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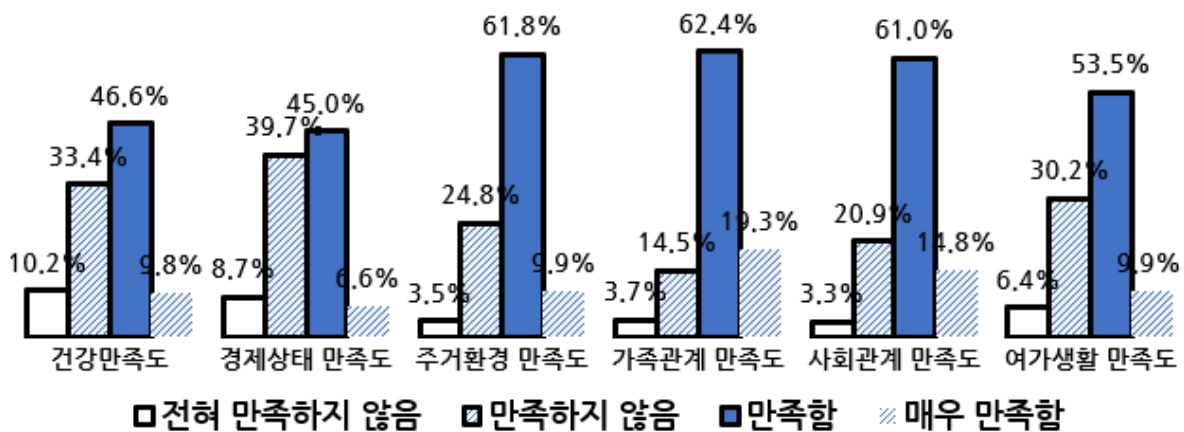
나. 삶의 만족도

- 건강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만족함 250명(56.4%), 경제상태는 매우 만족함/만족함 236명(51.60%)으로 조사대상자가 건강과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함/만족함 비율이 63.4% ~ 81.7%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2〉 삶의 만족도

구분	건강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빈도	분포 (%)
전혀 만족하지 않음	47	10.2	40	8.7	16	3.5	17	3.7	15	3.3	29	6.4
만족하지 않음	154	33.4	182	39.7	113	24.8	66	14.5	95	20.9	137	30.2
만족함	215	46.6	206	45.0	282	61.8	284	62.4	277	61.0	243	53.5
매우 만족함	45	9.8	30	6.6	45	9.9	88	19.3	67	14.8	45	9.9
합계	461	100	458	100	456	100	455	100	454	100	454	100

그래프



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받는 존중감에 대한 인식

- 존중받고 있는 편 270명(58.7%), 매우 존중받고 있는 편 61명(13.3%)으로 조사대상자의 72%가 주변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3〉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받는 존중감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	23	5	
존중받지 못하는 편	106	23	
존중받고 있는 편	270	58.7	
매우 존중받고 있는 편	61	13.3	
합계	460	100	

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지원 97명(26.1%), 자가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66명(17.8%), 시설 휴관을 대체할 수 있는 방문 프로그램 제공 54명(14.6%),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지원 54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표54〉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장애인 유형에 알맞은 코로나19 정보 제공	51	13.7	
자가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66	17.8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지원	97	26.1	
안부, 건강 확인 등 온라인 및 전화상담서비스	20	5.4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프로그램 제공	21	5.7	
시설 휴관을 대체할 수 있는 방문 프로그램 제공	54	14.6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지원	54	14.6	
기타	8	2.2	
합계	371	100	

11. 장애인 탈시설 관련 욕구조사

가.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대한 인식

-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모름 365명 83.7%, 알고 있음 71명(16.3%)으로 다수가 탈시설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5〉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알고 있음	71	16.3	
모름	365	83.7	
합계	436	100	

나.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욕구에 대한 견해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욕구에 대한 견해로 탈시설 의지는 있지만 두려워함 145명(34.4%), 탈시설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음 107명(25.4%), 탈시설에 대한 의지가 불확실함 93명(22%), 탈시설 의지가 강함 77명(18.2%) 순으로 나타났다.

〈표56〉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욕구에 대한 견해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탈시설 의지가 강함	77	18.2	
탈시설 의지는 있지만 두려워함	145	34.4	
탈시설에 대한 의지가 불확실함	93	22	
탈시설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음	107	25.4	
합계	422	100	

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가능성에 대한 의견

- 탈시설이 어려움 226명(56.9%), 탈시설이 가능함 171명(43.1%)으로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57〉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분포(%)	그래프
탈시설이 가능함	171	43.1	
탈시설이 어려움	226	56.9	
합계	397	100	

- 탈시설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중응답)는 경제적 자립 어려움 98명(41%), 사회적응 어려움 97명(40.6%), 의·식·주 해결 어려움 89명(37.2%), 건강문제 74명(31%) 순으로 나타났다.

〈표58〉 탈시설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구분	빈도 (N=239)	분포(%)	그래프
건강문제	74	31.0	
의, 식, 주 해결 어려움	89	37.2	
사회적응 어려움	97	40.6	
경제적 자립 어려움	98	41.0	
대인관계 어려움	61	25.5	
당사자의 자립의지 없음	35	14.6	
원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음	23	9.6	
기타	8	1.6	

마. 탈시설 추진 시 장애인에게 예상되는 어려움

- 탈시설 추진 시 장애인에게 예상되는 어려움(다중응답)은 경제적인 문제 243명(58.7%),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 165명(39.9%), 안정된 주거지 확보 140명(33.8%), 편의시설 부족 및 사회 편견 119명(28.7%) 순으로 나타났다.

〈표59〉 탈시설 추진 시 장애인에게 예상되는 어려움

구분	빈도 (N=414)	분포(%)	그래프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	165	39.9	기타	0.2%
경제적인 문제	243	58.7	외로움, 가족과의 단절문제	19.6%
안정된 주거지 확보	140	33.8	대인관계	23.2%
편의시설 부족 및 사회편견	119	28.7	건강유지	23.7%
건강유지	98	23.7	편의시설 부족 및 사회편견	28.7%
대인관계	96	23.2	안정된 주거지 확보	33.8%
외로움, 가족과의 단절 문제	81	19.6	경제적인 문제	58.7%
기타	1	0.2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	39.9%

바. 탈시설 추진 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 탈시설 추진 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다중응답)은 생활비 보조 215명(51.6%), 주택마련 203명(48.7%), 취업 등 일자리 지원 201명(48.2%), 활동지원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지원 159명(38.1%),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128명(30.7%) 순으로 나타났다.

〈표60〉 탈시설 추진 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구분	빈도 (N=417)	분포(%)	그래프
주택마련	203	48.7	지역사회복지... 13.4%
생활비 보조	215	51.6	원가족과의 관계강화 12.2%
취업 등 일자리 지원	201	48.2	사회복귀지원... 17.7%
활동지원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지원	159	38.1	지역사회인식개선활동... 16.3%
보장구 지원	48	11.5	정서적지지도... 20.6%
보건의료서비스 및 재활치료 지원	101	24.2	생활에 필요한... 19.9%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105	25.2	사회적응 및... 30.7%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128	30.7	지역복지서비스연계 25.2%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83	19.9	보건의료서비스 및... 24.2%
정서적지지 등 심리적 안정 지원	86	20.6	보장구 지원 11.5%
지역사회인식개선활동 지원	68	16.3	활동지원사, 간병인, ... 38.1%
사회복귀 지원 전담인력배치	74	17.7	취업등 일자리 지원 48.2%
원가족과의 관계 강화	51	12.2	생활비 보조 51.6%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56	13.4	주택마련 48.7%

12. 유형별 자기 결정 차이(교차분석)

가.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 차이

- 성별에 따라 집안일을 직접 수행하는 비율과 수행하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1.335$, $P<.001$). 남성은 집안일을 직접 한다(46.2%), 직접 하지 않는다(53.8%)로 나타났지만 여성은 집안일을 직접 한다(67.6%), 직접 하지 않는다(32.4%)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라 거주시설 입소를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 자립생활을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 정기 병원 진료를 받는 비율과 받지 않는 비율, 취업 비율과 비취업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차이

구분		분포	남	여	전체	χ^2	p
집안일 직접 수행 비율 차이	내가 한다	빈도	115	144	259	21.335***	.001
		%	46.2	67.6	56.1		
	내가 하지 않는다	빈도	134	69	203		
		%	53.8	32.4	43.9		
	전체	빈도	249	213	462		
		%	100	100	100		
거주시설 입소 희망 비율 차이	원한다	빈도	33	20	53	1.402	.236
		%	18.2	13.4	16.1		
	원하지 않는다	빈도	148	129	277		
		%	81.8	86.6	83.9		
	전체	빈도	181	149	330		
		%	100.0	100	100		
자립생활 희망 비율 차이	원한다	빈도	18	8	26	1.421	.233
		%	36.7	24.2	31.7		
	원하지 않는다	빈도	31	25	56		
		%	63.3	75.8	68.3		
	전체	빈도	49	33	82		
		%	100	100	100		

구분		분포	남	여	전체	χ^2	p
정기적인 병원 진료 비율 차이	진료받음	빈도	141	132	273	.451	.502
		%	56.4	59.5	57.8		
	진료받지 않음	빈도	109	90	199		
		%	43.6	40.5	42.2		
	전체	빈도	250	222	472		
		%	100	100	100		
취업 비율 차이	현재 취업	빈도	141	132	273	.451	.502
		%	56.4	59.5	57.8		
	현재 비취업	빈도	109	90	199		
		%	43.6	40.5	42.2		
	전체	빈도	250	222	472		
		%	100	100	100		

p<.05, **p<.01, ***p<.001

나.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 차이

- 장애유형에 따라 집안일을 직접 수행하는 비율과 수행하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073$, $P<.01$). 정신적 장애인은 집안일을 직접 한다(46.0%), 직접 하지 않는다(54.0%)로 나타났지만, 신체적 장애인은 집안일을 직접 한다(62.5%), 직접 하지 않는다(37.5%)로 나타났다.
- 거주시설 입소를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 자립생활을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기 병원 진료를 받는 비율과 받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083$, $P<.001$). 정신적 장애인은 정기 진료 받는다(49.0%), 받지 않는다(51.0%)로 나타났지만, 신체적 장애인은 정기 진료받는다(64.5%), 받지 않는다(35.5%)로 나타났다.

- 취업 비율과 비취업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233$, $P<.01$). 정신적 장애인은 취업(24.3%), 비취업(75.7%)으로 나타났지만, 신체적 장애인은 취업(36.5%), 비취업(63.5%)으로 나타났다.

〈표62〉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 차이

구분		분포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전체	χ^2	p
집안일 직접 수행 비율 차이	내가 한다	빈도	87	162	249	12.073 **	.001
		%	46.0	62.5	55.6		
	내가 하지 않는다	빈도	102	97	199		
		%	54.0	37.5	44.4		
	전체	빈도	189	259	448		
		%	100	100	100		
거주시설 입소 희망 비율 차이	원한다	빈도	21	32	53	.404	.525
		%	15.1	17.8	16.6		
	원하지 않는다	빈도	118	148	266		
		%	84.9	82.2	83.4		
	전체	빈도	139	180	319		
		%	100	100	100		
자립생활 희망 비율 차이	원한다	빈도	11	12	23	.074	.785
		%	31.4	28.6	29.9		
	원하지 않는다	빈도	24	30	54		
		%	68.6	71.4	70.1		
	전체	빈도	35	42	77		
		%	100	100	100		
정기적인 병원 진료 비율 차이	진료받음	빈도	96	169	265	11.083 **	.001
		%	49	64.5	57.9		
	진료받지 않음	빈도	100	93	193		
		%	51	35.5	42.1		
	전체	빈도	196	262	458		
		%	100	100	100		
취업 비율 차이	현재 취업	빈도	45	89	134	7.233 **	.007
		%	24.3	36.5	31.2		
	현재 비취업	빈도	140	155	295		
		%	75.7	63.5	68.8		
	전체	빈도	185	244	429		
		%	100	100	100		

$p<.05$, ** $p<.01$, *** $p<.001$

다. 장애정도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 차이

- 장애정도에 따라 집안일을 직접 수행하는 비율과 수행하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216$, $P<.01$). 중증장애인은 집안일을 직접 한다(50.3%), 직접 하지 않는다(49.7%)로 나타났지만, 경증장애인은 집안일을 직접 한다(65.6%), 직접 하지 않는다(34.4%)로 나타났다.
- 장애정도에 따라 거주시설 입소를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 자립생활을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 정기 병원 진료를 받는 비율과 받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정도에 따라 취업 비율과 비취업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650$, $P<.05$). 중증장애인은 취업(27.1%), 비취업(72.9%)으로 나타났지만, 경증장애인은 취업(37.8%), 비취업(62.2%)으로 나타났다.

〈표63〉 장애정도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 차이

구분		분포	중증장애	경증장애	전체	χ^2	p
집안일 직접 수행 비율 차이	내가 한다	빈도	156	80	236	8.216 **	.004
		%	50.3	65.6	54.6		
	내가 하지 않는다	빈도	154	42	196		
		%	49.7	34.4	45.4		
	전체	빈도	310	122	432		
		%	100	100	100		
거주시설 입소 희망 비율 차이	원한다	빈도	32	17	49	.921	.337
		%	14.7	19.1	16		
	원하지 않는다	빈도	186	72	258		
		%	85.3	80.9	84		
	전체	빈도	218	89	307		
		%	100	100	100		
자립생활 희망 비율 차이	원한다	빈도	15	7	22	.033	.856
		%	31.3	29.2	30.6		
	원하지 않는다	빈도	33	17	50		
		%	68.8	70.8	69.4		
	전체	빈도	48	24	72		
		%	100	100	100		

구분		분포	중증장애	경증장애	전체	χ^2	p
정기적인 병원 진료 비율 차이	진료받음	빈도	173	83	256	1.662	.197
		%	55.8	62.4	57.8		
	진료받지 않음	빈도	137	50	187		
		%	44.2	37.6	42.2		
	전체	빈도	310	133	443		
		%	100	100	100		
취업 비율 차이	현재 취업	빈도	81	45	126	4.650*	.031
		%	27.1	37.8	30.1		
	현재 비취업	빈도	218	74	292		
		%	72.9	62.2	69.9		
	전체	빈도	299	119	418		
		%	100	100	100		

p<.05, **p<.01, ***p<.001

라.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 차이

- 수급 여부별 집안일을 직접 수행하는 비율과 수행하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시설 입소를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894$, $P<.05$). 수급자는 거주시설 입소를 원한다(20.5%), 원하지 않는다(79.5%)로 나타났지만, 비수급자는 거주시설 입소를 원한다(10.6%), 원하지 않는다(89.4%)로 나타났다.
- 자립생활을 원하는 비율과 원하지 않는 비율, 정기진료를 받는 비율과 받지 않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 비율과 비취업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533$, $P<.01$). 수급자는 취업(23.2%), 비취업(76.8%)으로 나타났지만, 비수급자는 취업(38.4%), 비취업(61.6%)으로 나타났다.

〈표64〉 수급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의 비율 차이

구분		분포	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χ^2	p
집안일 직접 수행 비율 차이	내가 한다	빈도	112	138	250	3.008	.083
		%	52.1	60.3	56.3		
	내가 하지 않는다	빈도	103	91	194		
		%	47.9	39.7	43.7		
	전체	빈도	215	229	444		
		%	100	100	100		
거주시설 입소 희망 비율 차이	원한다	빈도	32	17	49	5.894*	.015
		%	20.5	10.6	15.5		
	원하지 않는다	빈도	124	143	267		
		%	79.5	89.4	84.5		
	전체	빈도	156	160	316		
		%	100	100	100		
자립생활 희망 비율 차이	원한다	빈도	14	11	25	.036	.849
		%	32.6	30.6	31.6		
	원하지 않는다	빈도	29	25	54		
		%	67.4	69.4	68.4		
	전체	빈도	43	36	79		
		%	100	100	100		

구분		분포	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χ^2	p
정기적인 병원 진료 비율 차이	진료받음	빈도	134	131	265	1.506	.220
		%	61.2	55.5	58.2		
	진료받지 않음	빈도	85	105	190		
		%	38.8	44.5	41.8		
	전체	빈도	219	236	455		
		%	100	100	100		
취업 비율 차이	현재 취업	빈도	47	86	133	11.533 ***	.001
		%	23.2	38.4	31.1		
	현재 비취업	빈도	156	138	294		
		%	76.8	61.6	68.9		
	전체	빈도	203	224	427		
		%	100	100	100		

p<.05, **p<.01, ***p<.001

13.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t-검정)

가.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 성별에 따라 월평균 임금, 건강에 대한 만족,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65〉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월평균 임금	남	91	2.07	1.272	.111	.912
	여	69	2.04	1.254		
건강에 대한 만족	남	246	2.58	.847	.111	.912
	여	215	2.53	.753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남	245	2.46	.738	-.991	.322
	여	213	2.53	.756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남	245	2.81	.638	1.095	.274
	여	211	2.74	.691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남	245	2.98	.683	.062	.951
	여	210	2.97	.718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	남	243	2.89	.692	.552	.581
	여	211	2.85	.685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남	243	2.64	.771	-.853	.394
	여	211	2.70	.704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	남	247	2.77	.727	-1.050	.294
	여	213	2.84	.722		

p<.05, **p<.01, ***p<.001

나.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 장애유형(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에 따라 월평균 임금($t=-3.096$, $p<.01$), 건강에 대한 만족($t=6.842$, $p<.001$),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t=4.002$, $p<.001$),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t=4.048$, $p<.001$),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t=2.02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반면, 장애유형에 따라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 타인에 의해 존중 받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즉, 월평균 임금은 신체적 장애인이 정신적 장애인보다 더 높고, 건강에 대한 만족,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은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6〉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월평균 임금	정신적 장애	55	1.64	1.043	-3.096 **	.002
	신체적 장애	101	2.28	1.328		
건강에 대한 만족	정신적 장애	194	2.85	.678	6.842 ***	.000
	신체적 장애	255	2.35	.832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정신적 장애	192	2.65	.772	4.002 ***	.000
	신체적 장애	253	2.36	.709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정신적 장애	191	2.92	.656	4.048 ***	.000
	신체적 장애	252	2.67	.656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정신적 장애	191	2.98	.711	.162	.872
	신체적 장애	251	2.97	.698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	정신적 장애	188	2.92	.628	1.196	.232
	신체적 장애	252	2.84	.724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정신적 장애	189	2.75	.734	2.021*	.044
	신체적 장애	252	2.61	.747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	정신적 장애	192	2.78	.707	-.322	.748
	신체적 장애	253	2.80	.742		

$p<.05$, ** $p<.01$, *** $p<.001$

다. 장애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 장애정도(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라 건강에 대한 만족($t=2.215$, $p<.05$),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t=3.104$, $p<.01$),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t=2.904$,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반면, 장애정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는 장애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즉, 건강에 대한 만족,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은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7〉 장애정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월평균 임금	중증_심한 장애	92	2.08	1.277	-.233	.816
	경증_심하지 않은 장애	55	2.13	1.306		
건강에 대한 만족	중증_심한 장애	308	2.62	.832	2.215*	.027
	경증_심하지 않은 장애	127	2.43	.719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중증_심한 장애	305	2.57	.736	3.104**	.002
	경증_심하지 않은 장애	128	2.33	.754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중증_심한 장애	305	2.84	.660	2.904**	.004
	경증_심하지 않은 장애	127	2.64	.686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중증_심한 장애	303	2.99	.688	.599	.550
	경증_심하지 않은 장애	129	2.95	.743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	중증_심한 장애	303	2.88	.720	.268	.789
	경증_심하지 않은 장애	127	2.86	.626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중증_심한 장애	303	2.68	.767	.379	.705
	경증_심하지 않은 장애	127	2.65	.671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	중증_심한 장애	306	2.78	.737	-.670	.503
	경증_심하지 않은 장애	128	2.84	.718		

$p<.05$, ** $p<.01$, *** $p<.001$

라.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월평균 임금($t=-3.723$, $p<.001$),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t=-2.802$, $p<.01$),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t=-3.034$, $p<.01$),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t=-3.695$,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반면,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건강에 대한 만족,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즉, 월평균 임금,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 가족환경에 대한 만족,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는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8〉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값의 차이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월평균 임금	수급자	62	1.61	1.014	-3.723 ***	.000
	비수급자	94	2.35	1.326		
건강에 대한 만족	수급자	217	2.51	.811	-.965	.335
	비수급자	229	2.59	.799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수급자	215	2.43	.764	-1.826	.068
	비수급자	228	2.56	.721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수급자	216	2.69	.736	-2.802 **	.005
	비수급자	226	2.86	.592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수급자	215	2.87	.758	-3.034 **	.003
	비수급자	227	3.07	.631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	수급자	213	2.81	.715	-1.849	.065
	비수급자	227	2.93	.665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수급자	214	2.61	.741	-1.560	.119
	비수급자	227	2.72	.747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	수급자	219	2.68	.717	-3.695 ***	.000
	비수급자	226	2.92	.705		

$p<.05$, ** $p<.01$, *** $p<.001$

14.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다중회귀분석)

-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8.064$,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6.3%(수정된 R^2 은 49.3%)로 나타났다($R^2=.563$, $\Delta R^2=.493$). Durbin-Watson 통계량은 1.96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장애유형($\beta=-.239$, $p<.05$), 수급자 여부($\beta=.184$, $p<.05$), 현 거주지의 편리함($\beta=.230$, $p=.01$),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beta=.580$, $p<.001$)가 조사 대상자의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신체적 장애인일수록 삶의 만족은 감소하였으며 비수급자일수록, 거주지가 편하다고 인식할수록, 타인에 의해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9〉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	p	VIF
삶의 만족	(상수)	.901	.371		2.431	.017	
	더미_성별	.007	.083	.007	.084	.933	1.298
	장애수준	.062	.088	.061	.701	.485	1.292
	장애유형	-.245	.094	-.239	-2.605*	.011	1.449
	정기진료	.029	.083	.030	.351	.727	1.291
	취업	.151	.123	.101	1.227	.224	1.157
	수급자 여부	.101	.047	.184	2.161*	.034	1.249
	학력	-.007	.020	-.033	-.365	.716	1.379
	월평균 임금	-.011	.036	-.028	-.301	.764	1.458
	일 평균 식사횟수	.056	.074	.064	.754	.453	1.229
	운동 여부	-.056	.060	-.080	-.936	.352	1.251
	현재 거주지의 편리함	.169	.064	.230	2.650*	.010	1.295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	.381	.056	.580	6.774***	.000	1.259

$F=8.064(P<.001)$, $R^2=.563$, $\Delta R^2=.493$, D-W= 1.964

$p<.05$, ** $p<.01$, *** $p<.001$

15. 탈시설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다중회귀분석)

- 탈시설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4.43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2.6%(수정된 R^2 은 9.7%)로 나타났다. ($R^2=.126$, $\Delta R^2=.097$). Durbin-Watson 통계량은 1.936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장애유형($\beta=.155$, $p<.05$), 평생교육 참여경험($\beta=.172$, $p<.01$), 출생년도($\beta=.198$, $p<.01$),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beta=.198$, $p<.001$),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beta=-.258$, $p<.01$)이 조사대상자의 탈시설 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신체적 장애인일수록, 평생교육을 받고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타인에 의한 존중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감이 낮을수록 탈시설화 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0〉 탈시설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	p	VIF
탈시설 의지	(상수)	1.072	.366		2.927	.004	
	성별	.018	.118	.008	.153	.879	1.085
	장애수준	.080	.130	.034	.614	.539	1.096
	장애유형	.331	.145	.155	2.285*	.023	1.627
	평생교육	.382	.121	.172	3.142**	.002	1.058
	수급자 여부	.112	.062	.100	1.800	.073	1.097
	학력	-.002	.025	-.004	-.069	.945	1.203
	출생년도	.105	.037	.198	2.854**	.005	1.704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	.299	.085	.198	3.522***	.000	1.119
	건강에 대한 만족	.020	.087	.016	.229	.819	1.673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258	.094	-.188	-2.734**	.007	1.664

$$F=4.433(P<.001), R^2=.126, \Delta R^2=.097, D-W= 1.936$$

$p<.05$, ** $p<.01$, *** $p<.001$

III. 결론 및 제언



Ⅲ. 결론 및 제언

본 기관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장애인 정책 및 지원방안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

조사에 응답한 일상생활 수행과 관련하여 내가 한다는 비율 56.1%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4명은 일상생활 수행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 46.2%, 여성 67.6%로 여성이 높았고, 정신적장애인 46%, 신체적 장애인 62.5%로 신체적 장애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증장애인보다는 경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수행을 직접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 직접 수행과 관련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신체적 장애인보다는 정신적 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수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에 대한 지원은 남성, 정신적 장애인,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 더 비중을 두는 방안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2. 가족을 대체할만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은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이 51.7%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활동지원사 19.9%, 사회복지사 7.3%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은 가족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족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가족을 대체할만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3.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해낼 수 있는 여건 마련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인은 현재 가족이나 친인척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시설의 입소는 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주시설입소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수급자는 20.5%, 비수급자는 10.6%로 나타나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에서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가 자립생활을 원할 경우 현실적인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현실적인 소득지원(일자리) 지원방안 마련

지역사회 생활시 불편한 점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의료기관 접근과 같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립 생활시 가장 필요한 지원 부분으로 소득지원 34.5%,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 21.9% 생계와 관련된 경제적인 지원과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사회간접시설은 점진적으로 유비쿼터스 모델로 개선해 나가고 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현실적인 소득지원 및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장애인 이용시설 설립하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유관협회, 사회복지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시 힘든 점으로 근접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내 추가 개설이 필요한 시설로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내 장애인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장애인 이용시설을 설립하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거나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장애인은 57.8%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정신적 장애인보다는 신체적 장애인이 정기진료를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의 경우 60.8%가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건강 검진비 지원, 이동지원, 치료·재활교육 및 정보제공,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유형을 고려한 건강 및 의료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비 부담금이 만성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7. 맞춤형 보조기구 보급 및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 모색

보조기구는 장애인 25.7%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명 중 2명은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이유로는 내 몸에 맞지 않고 구입비용이 과다하며 구입 후 성능 및 기능 저하가 심하고, 신청 및 보급 절차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보조기구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보조기구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서비스 영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기구의 신청 및 보급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8. 평생교육기관 확충 및 프로그램 확대

평생교육은 65.4%가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앞으로 지원 사항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보, 평생교육시설 확충, 교육비 지원의 욕구가 있었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과 생계를 위한 직업교육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여 인적자본과 자아존중감을 향상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이 대상 평생교육기관 확충, 프로그램 확대, 재정지원 확대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9. 여가·문화활동 참여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이동 수단 지원

주로 참여하는 여가 및 문화활동 방법으로 TV 시청·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실내 활동과 주거지 인근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동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답하여 여가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지원과 이동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활동 참여를 위한 이동 수단 지원에 대해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 장애인 일자리 지원정책 마련

장애인 취업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31%만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취업 비율을 살펴보면 정신적 장애인 보다 신체적 장애인의 취업률이 더 높았으며 중증장애인보다는 경증장애인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100만 원 이하가 71.3%로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공공형 일자리 및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의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하지 않는 이유로는 장애로 인해 힘들고 적성이 맞는 일자리가 없거나, 나를 고용하려는 직장이 없어서, 급여 등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였으며 취업을 위한 지원으로 취업 정보제공 및 기회 확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작업장 마련, 직업교육 및 현장훈련 제공,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한 장애인 직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제적 자립이 탈시설화 정책의 근간이 되므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1. 생애주기별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

연령대별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장애아동은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같은 성장기 아동에 필요한 학습의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장애청소년은 학교 졸업 후 자립을 위하여 직업교육과 자립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성인장애인은 취업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였고 장년 및 노인장애인은 생계와 관련한 반찬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 다음으로 외출 지원을 필요한 서비스로 선택하는 등 생애주기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학습욕구, 장애청소년들의 직업교육 및 자립교육 욕구, 성인 장애인들의 취업지원 욕구, 장년 및 노인 장애인들의 생존욕구(반찬지원 등) 및 이동욕구(외출지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즉, 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2. 사회복지시설 내 소통장소 마련 및 시설 환경 개선 필요

사회관계 및 삶의 만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사회적 소통방법은 전화, 문자를 통한 대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통, 약속한 후 대면하여 소통하는 방법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었고 거의 소통하지 않음이 6.8%로 나타나 사회와 소통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소통 방법은 대면방식, 소통장소는 사회복지시설에 조사되었으므로 장애인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에서 즐겁게 대면 소통할 수 있는 카페나 심터를 마련하거나 혹은 장애인의 소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내 환경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환경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3. 탈시설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실시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10명 중 8명은 모르고 있다고 답하였고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화 욕구에 대한 견해는 다수가 의지가 없거나 두려워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탈시설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탈시설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공적인 탈시설화는 탈시설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탈시설화에 대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도울 수 사람들은 장애인 주변에서 장애인을 실제 돕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다. 따라서 이들을 변화매개체로 활용하여 이들에게 우선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긍정성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 이들이 장애인에게 탈시설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4.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현실적인 자립지원 정책 추진

탈시설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 안정된 주거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필요한 지원으로 생활비 보조, 주택마련, 취업 등 일자리 지원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 자립을 위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탈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주거지원, 생활비 지원, 취업 및 일자리 지원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둔 현실적인 자립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5. 장애인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강구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장애유형 따른 변수는 월평균 임금은 신체적 장애인이 정신적 장애인보다 더 높고, 건강에 대한 만족,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은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에 따른 변수는 건강에 대한 만족,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은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른 변수는 월평균 임금, 주거상태에 대한 만족, 가족환경에 대한 만족,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는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지원 및 임금보조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건강, 경제상태, 주거환경,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으므로 신체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서비스 지원, 경제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 여가 서비스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42%(201명)는 정신적 장애인인데 정신적 장애인은 그 특성상 중증장애인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건강에 대한 만족,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상기의 정신적 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인보다 건강에 대한 만족,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이 더 높게 나타난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서비스 제공에서 다소 배제되어왔던 경증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인이 건강, 경제상태, 주거환경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 경제, 주거환경 서비스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 비수급자가 월평균 임금, 주거상태, 가족환경에 대한 만족과 타인에 의해 존중받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급자가 수급의 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탈수급 정책이나 자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보다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탈수급 지원정책 및 제도 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유형별 필요한 지원이 다양한 사항으로 장애인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6.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

본 연구결과 장애인의 삶의 만족은 정신적 장애인일수록, 비수급자일수록, 거주지가 편하다고 인식할수록, 타인에 의해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조사 대상자의 삶의 만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적 장애인일수록, 수급자일수록, 거주지가 불편할수록, 자아존중감(타인에 의해 받는 존중감)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은 감소하기에 장애인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현실적인 탈수급 정책, 불편한 거주환경 개선,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자아존중감을 향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신체적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에 중점을 두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IV.부록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IV. 부록

1. 2021년 전라남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설문지

[설문번호]

--	--	--	--

2021년 전라남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라남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과 프로그램, 서비스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제언 등을 위해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느꼈던 다양한 의견 및 앞으로 진행될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문지를 통해 이야기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기재해주신 정보와 설문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 설문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1길 67

TEL . 061-332-4104 FAX . 061-333-9966

○ 조 사 일 : 2021년 월 일

일반 영역

다음은 설문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일반 사항 영역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V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__① 장애인 당사자 (본인)입니다 → 2번으로 가서 설문조사를 시작하세요.

__② 장애인 당사자 (본인)가 아닙니다 (대리 응답자) → 1-1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이 질문에는 대리 응답자만 답변해 주세요.

1-1. 장애인 당사자(본인)와 어떤 관계인가요?

__① 배우자 __② 부모 __③ 자녀 __④ 형제자매 __⑤ 조부모 __⑥ 활동지원사
__⑦ 자원봉사자 __⑧ 이웃/친척 __⑨ 기타()

1-2. 대리 응답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__①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__② 장애인 당사자가 어려서 ③ 기타()

2. 다음은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문항들은 지역 장애인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__① 남 __② 여	출생년월	년 월
학력	__① 미취학 __② 초등학교 재학 __③ 초등학교 졸업 __④ 중학교 재학 __⑤ 중학교 졸업 __⑥ 고등학교 재학 __⑦ 고등학교 졸업 __⑧ 대학교 재학 __⑨ 대학교 졸업		
장애등록 유무	__① 장애 등록 (⇒ 장애 유형으로) __② 장애 미등록 (⇒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__① 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몰라서 __② 주변에 장애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__③ 등록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__④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__⑤ 등록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서 __⑥ 기타()		

장애 유형 (※ 중복장애일 경우 주 장애)	__① 지적장애 __② 자폐성장애 __③ 정신장애 __④ 안면장애 __⑤ 뇌병변장애 __⑥ 청각장애 __⑦ 호흡기장애 __⑧ 언어장애 __⑨ 지체장애 __⑩ 시각장애 __⑪ 심장장애 __⑫ 신장장애 __⑬ 뇌전증 __⑭ 장루·요루장애 __⑮ 간 장애 __⑯ 없음			
장애정도	__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__②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__① 기초생활수급자 __② 차상위 __③ 수급자가 아님			
가족 수	(본인 포함하여)_____명	가족 중 장애인 수	(본인 포함하여)_____명	
가족구성 형태	__① 1인 가구(본인) __② 부부 __③ 부부(부모) + 자녀 __④ 조부모+부부+자녀 __⑤ 한부(모) + 자녀 __⑥ 조부모 + 손자녀 __⑦ 형제자매등 __⑧기타 ()			
거주지 지역	__① 목포시 __② 여수시 __③ 순천시 __④ 나주시 __⑤ 광양시 __⑥ 담양군 __⑦ 곡성군 __⑧ 구례군 __⑨ 고흥군 __⑩ 보성군 __⑪ 화순군 __⑫ 장흥군 __⑬ 강진군 __⑭ 해남군 __⑮ 영암군 __⑯ 무안군 __⑰ 함평군 __⑱ 영광군 __⑲ 장성군 __⑳ 완도군 __㉑ 진도군 __㉒ 신안군 __㉓ 타지역()			

욕구조사 영역

다음은 전라남도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영역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일상 생활

A1. 귀하는 청소, 빨래, 식사준비,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직접 하고 계십니까?

- __① 그렇다(1-1번으로) __② 아니다(A2번으로)

A1-1. 귀하가 담당하는 집안일의 부담 정도는 어떻습니까?

- __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__② 부담되지 않음 __③ 부담됨 __④ 매우 부담됨

A2.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많이 도움을 준 두 사람만 선택)

- __① 유료 간병인/봉사원 __② 활동지원사 __③ 무료 간병인/가정봉사원
 __④ 요양보호사 __⑤ 사회복지사 __⑥ 종교단체 관계자
 __⑦ 부모 __⑧ 배우자 __⑨ 형제자매
 __⑩ 친척 __⑪ 친구나 이웃 __⑫ 기타()

A3. 아래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해당 항목에 V표해 주십시오.

항 목	현재 받는 도움		현재 도움 충분 정도	
	받고 있음	받고 있지 않음	충분함	충분하지 않음
A3-1. 개인위생 관리(목욕, 세수, 대소변, 옷 입기)	☐	☐	☐	☐
A3-2. 외출, 문화여가생활 참여(대중교통 이용, 여행, 쇼핑 등)	☐	☐	☐	☐
A3-3. 집 안 청소, 빨래, 장보기, 식사 준비치우기	☐	☐	☐	☐
A3-4. 건강관리(약먹기, 상처치료, 운동 등)	☐	☐	☐	☐
A3-5. 돈 관리(저축, 생활비 관리)	☐	☐	☐	☐
A3-6. 의사소통(문자, 전화, 대화하기)	☐	☐	☐	☐
A3-7. 학습활동(한글 읽고 쓰기, 숫자 배우기 등)	☐	☐	☐	☐

B. 자립생활

B1.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__① 가족, 친척과 같이 살고 있다 (3-1번으로)

__② 장애인들과 함께 거주시설(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다(3-2번으로)



B1-1. 향후 장애인이 모여 생활하는 거주시설에서 살고 싶습니까?

__① 그렇다

__② 아니다

B1-2. 시설에서 퇴소해서 자립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__① 그렇다

__② 아니다

B2. 현재 사는 곳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 정도는 어떠합니까?

__① 매우 불편하다 __② 불편하다 __③ 편하다 __④ 매우 편하다

B3.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__① 시장마트은행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

__② 녹지공간, 공원 등이 부족해 불편

__③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힘들

__④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해 불편함

__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함

__⑥ 기타()

B4.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__① 소득지원

__② 의료재활 지원

__③ 직업재활/취업지원

__④ 이동 편의 지원

__⑤ 주거지원

__⑥ 일상생활 활동지원

__⑦ 보조기기 지원

__⑧ 기타()

C. 사회복지 시설 이용

C1. 전라남도에서 귀하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__① 장애인복지관

__② 사회복지관

__③ 주간보호센터

__④ 장애인 거주시설(생활시설)

__⑤ 보호작업장

__⑥ 정신장애인 시설

__⑦ 장애인 유관 협회

__⑧ 기타()

C2.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데 힘든 점이 있습니까? (2개까지 선택)

__① 힘든 점이 없음

__② 시설, 프로그램 정보 부족

__③ 시설의 절대적 부족

__④ 집에서 가까운 시설 부족

__⑤ 시설의 거절

__⑥ 비용 부담

__⑦ 장기간 대기 문제

__⑧ 일회성 서비스 제공

__⑨ 장애인 관리 미흡

__⑩ 기타()

C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추가로 개설해야 하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 ① 장애인복지관 ☐ ② 사회복지관 ☐ ③ 주간보호센터 ☐ ④ 경증장애인 거주시설
☐ 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⑥ 자립생활 체험 시설 ☐ ⑦ 직업훈련(재활)시설 ☐ ⑧ 보호작업장
☐ ⑨ 발달재활치료 전문시설 ☐ ⑩ 기타()

D. 건강·보조기기

D1.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건강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강 사항	항 목
D1-1. 하루 평균 식사 횟수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4회 이상
D1-2. 흡연 유무	☐ ① 담배 안 피움 ☐ ② 담배를 피우고 있음(하루 평균 : 개피)
D1-3. 음주 정도	☐ ① 전혀 술을 안마심 ☐ ② 월 1회 이하 ☐ ③ 월 2~3회 ☐ ④ 주 1~2회 ☐ ⑤ 주 3~4회 ☐ ⑥ 거의 매일 마심
D1-4. 운동(30분 이상)	☐ ① 전혀 하고 있지 않음 ☐ ② 주 1~3회 ☐ ③ 매일

D2. 귀하는 현재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계십니까?

-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D3. 최근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모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없음 ☐ ② 치과질환(충치, 부정교합, 이깨짐 등) ☐ ③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 ④ 당뇨병 ☐ ⑤ 고혈압, 저혈압 ☐ ⑥ 암(위, 간 폐 등)
☐ ⑦ 갑상선진환 ☐ ⑧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 ⑨ 천식, 만성기관지염(기침, 가래등)
☐ ⑩ 정신질환(우울증 등) ☐ ⑪ 심근경색증, 협심증 ☐ ⑫ 간경변, 만성간염
☐ ⑬ 녹내장, 백내장 등 ☐ ⑭ 중풍, 뇌혈관질환 ☐ ⑮ 기타()

D4.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 ① 건강검진비 지원 ☐ ② 이동지원
☐ ③ 체육시설 이용지원(할인 혜택 등) ☐ ④ 건강검진센터 내 장애인전문요원 배치
☐ ⑤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인식도 증가 ☐ ⑥ 건강관리 등 교육, 정보 제공
☐ ⑦ 병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⑧ 치료/재활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 ⑨ 기타()

D5.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구가 있습니까?

- ☐ ① 있다(D5-1,2번으로) ☐ ② 없다(D6번으로)

D5-1.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구는 만족스럽습니까?

- ☐ ① 매우 불만족함 ☐ ② 불만족함 ☐ ③ 만족함 ☐ ④ 매우 만족함

D5-2. 보조기구가 불만족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2개까지 선택)

- ☐ ① 기능, 성능이 떨어져서 ☐ ② 내 몸에 맞지 않아서 ☐ ③ 구입 비용이 너무 비싸서
☐ ④ A/S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 ⑤ 수리비용이 비싸서 ☐ ⑥ 신청, 보급절차가 까다로워서
☐ ⑦ 보조기기 이용 대기시간이 길어서 ☐ ⑧ 기타()

D6. 귀하가 현재 필요한 보조기구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항목에 모두 V표해 주십시오.

- ☐ ①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 ☐ ② 욕창방지 등 자세보조기구 ☐ ③ 목욕식사 등 일상생활 보조기구
☐ ④ 컴퓨터사용 보조기구 ☐ ⑤ 음성지원 등 의사소통보조기구 ☐ ⑥ 작업·학습보조기구
☐ ⑦ 시각장애이용 보조기구 ☐ ⑧ 청각장애이용 보조기구 ☐ ⑨ 기타 ()

E. 평생교육

E1. 귀하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E2.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 ①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제공 시설 확충 ☐ ②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③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보 ☐ ④ 교육비 지원
☐ ⑤ 접근성, 이동권 보장 ☐ ⑥ 평생교육 정보를 안내하고 설명해주는 기회 제공
☐ ⑦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시설 설립 ☐ ⑧ 기타 ()

E3.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 ① 한글 교육(읽기, 쓰기 등) ☐ ② 직업교육(직업기술, 취업 등)
☐ ③ 예술 교육(미술, 음악, 만들기 등) ☐ ④ 컴퓨터 교육(인터넷, 스마트폰 등)
☐ ⑤ 여가활동 교육(여행, 사진, 영화 등) ☐ ⑥ 자립생활 교육(일상생활, 요리, 관공서 이용 등)
☐ ⑦ 학력 보완 교육(초·중고 졸업장 취득) ☐ ⑧ 사회참여 교육(인권향상, 권리 증진 등)
☐ ⑨ 기타 ()

F. 여가·문화생활

F1. 주로 참여하고 있는 여가·문화활동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 ① 집에서 여가활동(TV시청, 인터넷, 스마트폰 등) ☐ ② 친구, 가족모임
☐ ③ 집근처에서 산책하거나 간단한 운동 ☐ ④ 영화, 연극, 연주회 등 관람
☐ ⑤ 동물·식물 키우기 ☐ ⑥ 예술활동(악기연주, 그림, 춤추기 등)
☐ ⑦ 종교활동 ☐ ⑧ 기타()

F2. 여가문화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음 ☐ ② 여가생활을 하고 싶어도 이동이 어려움
☐ ③ 장애, 재활로 인해 여가활동을 하기 어려움 ☐ ④ 불안감, 자신감 부족으로 여가생활이 어려움
☐ ⑤ 여가생활에 특별한 관심이 없음 ☐ ⑥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 부족
☐ ⑦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 ⑧ 기타()

F3. 앞으로 어떤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2개까지 선택)

- ☐ ① 영화, 음악회, 연극 관람 ☐ ② 운동(요가, 헬스, 수영 등) ☐ ③ 등산, 여행, 문화 탐방
☐ ④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 ⑤ 자기개발(자격증 공부, 학교 등) ☐ ⑥ 봉사활동
☐ ⑦ 사교모임(친구 만들기, 동호회 등) ☐ ⑧ 기타()

G. 직업생활

G1.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 ☐ ① 그렇다(G1-1번으로) ☐ ② 아니다(G1-2번으로)

G1-1. 현재 받고 있는 한달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입니까?(응답 후 G2번으로)

- ☐ ① 50만원 이하 ☐ ② 51~100만원 ☐ ③ 101~150만원 ☐ ④ 151~200만원
☐ ⑤ 201~300만원 ☐ ⑥ 301~400만원 ☐ ⑦ 401~500만원 ☐ ⑧ 500만원 이상

G1-2.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 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 ② 급여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③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 ④ 자녀양육 때문에
☐ ⑤ 배우자, 가족의 반대로 ☐ ⑥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 ⑦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서 ☐ ⑧ 나를 원하는 직장이 없어서
☐ ⑨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힘들어서 ☐ ⑩ 기타()

H2. 장애청소년(만13~18세)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 | |
|--|---|
| ☐ ① 자립 준비 프로그램 | ☐ ② 자기결정 훈련 프로그램 |
| ☐ ③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 ④ 방과 후 프로그램 |
| ☐ ⑤ 또래 관계 형성(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 ⑥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
| ☐ ⑦ 주말 나들이 및 문화 여가 프로그램 | ☐ ⑧ 방학 기간 프로그램(계절학교, 계절캠프 등) |
| ☐ ⑨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 ☐ ⑩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
| ☐ ⑪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 ☐ ⑫ 기타() |

H3. 성인장애인(만19~38세)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 | |
|---|--|
| ☐ ① 자립 지원 프로그램(일상생활교육 등) | ☐ ②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
| ☐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교양,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 ☐ ④ 문화여가 프로그램(체력, 나들이 등) |
| ☐ ⑤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 ☐ ⑥ 가족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등) |
| ☐ ⑦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 ☐ ⑧ 생계비 또는 생필품 지원 서비스 |
| ☐ ⑨ 후원지원사업 | ☐ ⑩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정보 제공 서비스 |
| ☐ ⑪ 기타() | |

H4. 장년·노인장애인(만39세 이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 | | |
|---|--------------------------------------|------------------------------------|
| ☐ ① 외출지원 | ☐ ② 이미지 | ☐ ③ 세탁지원 |
| ☐ ④ 현물지원 | ☐ ⑤ 반찬지원 | ☐ ⑥ 문화여가서비스 |
| ☐ ⑦ 의약품 및 방역관련 물품 지원(마스크, 손 세정제 등) | ☐ ⑧ 상담 및 안부전화 | |
| ☐ ⑨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 ☐ ⑩ 기타() | |

I. 사회관계, 삶의 만족 등

I1. 귀하는 사람들과 주로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2개까지 선택)

- | | | |
|--|---|---|
| ☐ ① 전화, 문자로 대화 | ☐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 밴드 등) | ☐ ③ 약속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 |
| ☐ ④ 사회복지시설에서 소통 | ☐ ⑤ 장애인 협회 활동으로 소통 | ☐ ⑥ 거의 소통하지 않음 |
| ☐ ⑦ 기타() | | |

12. 다음은 귀하의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V 표해 주십시오.

문 항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12-1. 건강	☐	☐	☐	☐
12-2. 경제 상태	☐	☐	☐	☐
12-3. 주거 환경	☐	☐	☐	☐
12-4. 가족과의 관계	☐	☐	☐	☐
12-5. 사회관계(친구, 이웃등)	☐	☐	☐	☐
12-6. 여가생활	☐	☐	☐	☐

13. 귀하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__①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__②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__③ 존중받고 있는 편이다

__④ 매우 존중받고 있는 편이다

1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__① 장애인 유형에 맞게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

__② 자택에서 생활중인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__③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지원

__④ 안부, 건강확인 등 온라인, 전화상담서비스 제공

__⑤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프로그램 제공

__⑥ 시설 휴관을 대체할 수 있는 방문 프로그램 제공

__⑦ 소득 저하로 인한 생계지원

__⑧ 기타 ()

15. 장애인 복지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 사항,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장애인 탈시설 관련 욕구조사

다음은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과 2021년 8월 2일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된 영역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V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 ① 알고 있다 ☐ ② 아니다

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거주시설(생활시설) 장애인이 ‘탈시설(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탈시설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 ② 탈시설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두려워한다
☐ ③ 탈시설에 대한 의지가 불확실하다 ☐ ④ 탈시설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3.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거주시설(생활시설) 장애인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지원 및 반복된 훈련과 교육을 통해 탈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탈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4번으로) ☐ ② 탈시설이 어렵다고 생각한다(3-1번으로)

3-1. [3문항에서 탈시설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만 응답]

거주시설(생활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해당하는 항목 모두 선택)

- ☐ ① 건강상의 이유 ☐ ② 생활문제(의,식,주) 해결이 어려움
☐ ③ 사회적응이 어려움 ☐ ④ 경제적 자립(취업 등)이 어려움
☐ ⑤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움 ☐ ⑥ 당사자의 자립의지가 없음
☐ ⑦ 원 가족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음 ☐ ⑧ 기타()

4. 거주시설(생활시설) 장애인이 탈시설 하는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 모두 선택)

- ☐ ① 일상생활 및 신변처리(화장실, 식사, 세탁 등) ☐ ② 경제적인 문제
☐ ③ 안정된 주거지 확보 ☐ ④ 사회환경(편의시설 및 사회편견 등)
☐ ⑤ 건강 유지 ☐ ⑥ 대인관계 형성
☐ ⑦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단절 ☐ ⑧ 기타()

5. 거주시설(생활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항목 모두 선택)

- | | |
|---|---|
| ☐ ① 주택마련 | ☐ ② 생활비 보조 |
| ☐ ③ 취업 등 일자리 지원 | ☐ ④ 활동지원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지원 |
| ☐ ⑤ 재활보조기기(보장구) 지원 | ☐ ⑥ 보건의료서비스, 재활치료 등 지원 |
| ☐ ⑦ 지역복지서비스와 연계 | ☐ ⑧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
| ☐ ⑨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 ⑩ 정서적지지 등 심리적 안정 지원 |
| ☐ ⑪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활동 지원 | ☐ ⑫ 사회복귀지원 전담인력 배치 |
| ☐ ⑬ 원가족과의 관계 강화(부모인식 개선 등) | ☐ ⑭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구축 |
| ☐ ⑮ 기타() | |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연구 책임 김 선 구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 공동 연구 조 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문 유 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정 환 울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연구팀장

2021 전라남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발 행 인 김선구
편 집 인 정환울, 조용운, 이슬아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 작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주 소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내영산1길 67(삼영동 635-9)
전 화 061) 332 - 4104
팩 스 061) 333 - 9966
홈페이지 <http://www.relife.or.kr/>

* 이 책의 저작권은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